

성도의 빛 4  
1974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한복음 17: 1~6)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 곧 하늘에서 우리에게 간증하시는 음성이니,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사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도다. 또 아버지께서 저의 권능에 맡기셨고 저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모든 자를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도다.

(교리와 성약 76: 40-42)

표지설명

구세주의 구속의 희생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겿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이 일은 구세주를 따르고 구속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구세주께서 주시는 용서와 영

생의 은사인 복음의 메시지를 아름답게 상징해 준다. 해리엔더슨이 그린 앞 표지의 “겿세마네”와 조 오지 오우츠가 찍은 뒷면의 사진은 구속의 위대성과 부활의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의미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김볼 대관장님, 리대관장님의 뒤를 잇다.

편집장 래리 힐러 씀

## 리 대관장

1899년 3월 28일, 아이다호주 클리프톤이란 작은 마을에서 해롤드 빙엄 리의 생애는 시작되었다. 1973년 12월 26일, 향년 74세로 돌아가셨을 때 수 많은 사람이 그의 서거를 애도했으며, 온 세계의 정치, 종교, 사업계의 지도자들도 조의의 뜻을 전해왔다.

대관장으로 일한 시간이 18개월 밖에 되지 않아 역대 어느 대관장 중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의 동료에게 세상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1972년 7월 7일 대관장으로 부름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이었다. 그는 32년간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인도하는 도구로 봉사하던 시기였다. 또한 봉사와 헌신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소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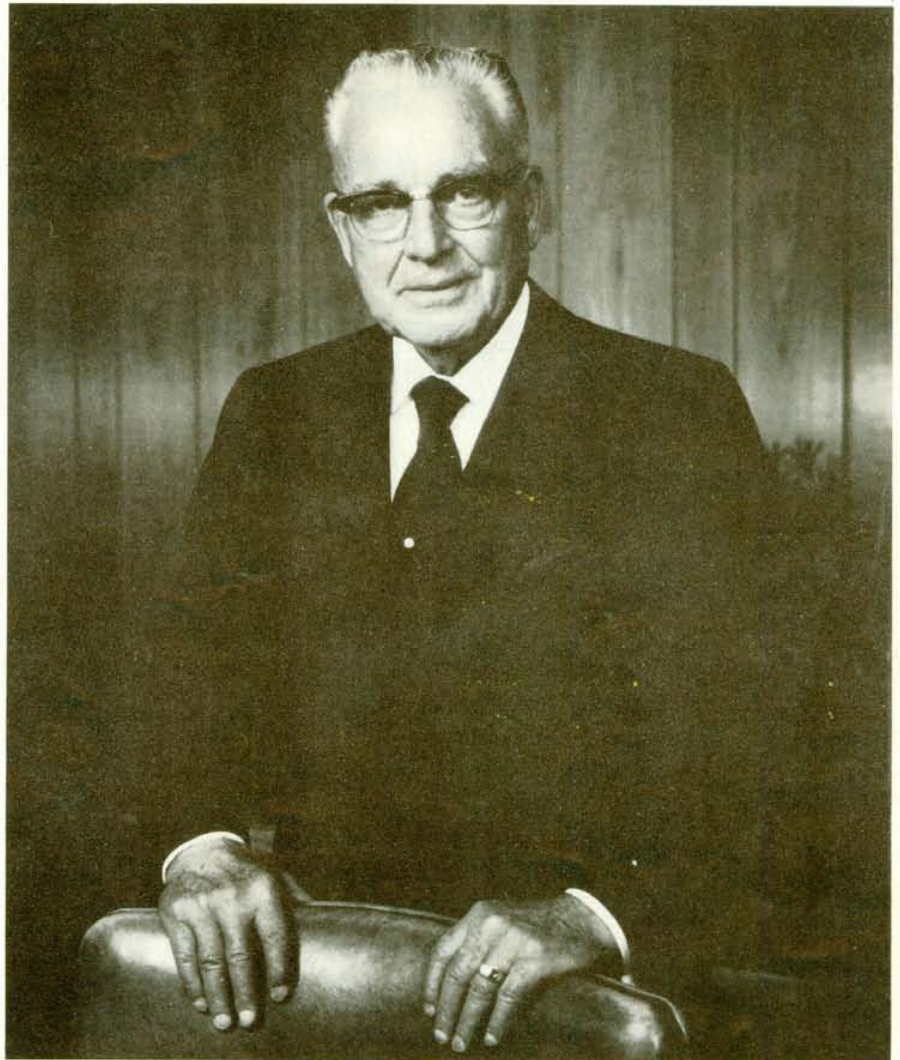
리 대관장께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것은 1929년 파이오니어 스테이크(슬트레이크시)의 보좌로 부름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음해, 31세에 그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당시에 대경제 공황이 시작되었으며 젊은 스테이크 부장은 그의 스테이크 내에 있는 회원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맡아야 했다. 남자 회원의 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가족을 부양할 일감을 찾지 못했다. 리 부장은 영감을 입어 창고를 지었다.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여 주기 위함이었다. 자선 기금에 의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허물어뜨린

건물에서 나온 자재로 스테이크 체육관을 지어 회원들에게 사교 및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키도 하였다.

1936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모든 스테이크를 조정하여 교회안 전 프로그램이라 불리우는 복지 활동을 시작하셨다. 리 부장이 초대 책임자가 되었으며 그후 오랫동안 교회 복

지 위원회 회장으로 일하였다.

1941년 4월 10일 해롤드 비리 장로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에 의하여 사도로 성임되었다. 사도로서 맡았던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 중에는 교회의 전반적인 교과 과정을 조정하는 협의 위원회 회장직도 있었다. 데이비드 오 백케이 대관장님이 서거하시자 그는 조셉 필딩 스미스



리 대관장

대관장님의 제일 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리 대관장님은 슬픔을 아셨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강하게만 하였다.

1962년 그가 스테이크 대회 참석차 집을 떠나 있을 때 그의 아내 편이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급히 아내에게로 갔으나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또한 1966년 교회의 일로 인하여 하와이에 있을 때 네 자녀의 어머니였던 그의 딸 머린이 죽었다.

1963년 리 대관장님은 페드라 조안젠슨 자매와 재혼하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헝클리 사도의 말을 빌자면 그녀는 “훌륭하게 리 대관장님의 생애를 보필하여 완전한 삶을 이루었다” 해롤드 빙엄 리 대관장님은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지니고 있었다. 대관장으로 성임된 직후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인도에 몸을 맡길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나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과 한 가족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나의 마음과 사랑을 알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의 사랑과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대관장단과 총관리 역원의 그들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리 대관장님은 성도들의 단합과 범세계적인 형제애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영국인이 아니고, 독일인이 아니며, 불란서인이 아니고 화란인도 아니며, 스페인인도 아니고 이탈리아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칠레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

성도의 빛 1974년 4월호

바울이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따라서 약속된 대로 상속자입니다.”(원헌 지역 대회 1973년 8월 25일)

리 대관장님께서 대관장이 되었을 때 준 권고는 그의 행정의 기본 목표가 되었으며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었다. “교회의 안전은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대관장이 서거하시면 대관장단은 자동적으로 해체되며 두 보좌는 십이사도 정원회로 돌아가 새로운 대관장이 선정되고 성임될 때까지 교회의 일을 관리하게 된다. 대관장직의 임선 과정은 순조로웠다. 리 대관장님의 서거는 누구에게나 큰 충격을 주었으나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여전히 교회가 질서 정연하게 수행되는 것을 본 몇몇 비회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권력 다툼이 없었으며, 세상적인 조직에서 의례히 있는 정치적인 문제도 개입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의 예언자로서 일을 행하게 될 사람을 마련하셨음을 성도들은 알았으며 십이사도 정원회는 신전에 모여 그 사람을 영감으로 택하였다.

### 킴블 대관장

요셉 스미스가 돌아가신 이래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신임 사도가 대관장이 되어 왔다. 1973년 12월 30일 십이사도 정원회는 솔트레이크 신전에 모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스펜서 율리 킴블을 선택하였다. 그는 보좌로 엔 엘돈 태너와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을 택

하였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킴블 대관장님에 의하여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성임되었다.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대변인으로서 벤슨 회장은 킴블 대관장을 12대 대관장으로 성임하였다. 킴블 대관장님은 1972년 7월 7일 이래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셨으며 사도가 되었던 것은 1943년 7월 8일이었다. 벤슨 회장도 역시 1943년 7월 8일 사도로 성임되었다.

리 대관장님의 서거에 대하여 킴블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분의 만수무강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이 책임이 내게 주어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1895년 3월 28일 솔트레이크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브리감 영 대관장님의 보좌이며 사도였던 허버 시 킴블의 아들 앤드류 킴블이었다.

킴블 가족은 1898년에 아리조나로 이주해 왔으며 앤드류 킴블은 세인트 조셉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다. 킴블가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가족 생활의 중심이었으며 자녀들은 봉사와 일의 가치를 배웠다.

“나는 집사로 성찬을 전달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교회 직책으로의 첫번째 부름은 집사 정원회 회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말씀하셨다.

젊은 시절에 그는 학비와 선교사

기금을 벌기 위하여 낙농장에서 일했다. 그는 스위스—독일 선교부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1914년 전쟁이 발발하자 샌추털 스테이트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30명의 선교사의 “대회 관리 책임자”가 되었다. 이 시기는 그가 지도자로서의 귀한 자질을 크게 발전시킨 시기였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김볼 대관장님은 아리조나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였다. 그때에 그는 카밀라 어링을 만났으며 그들은 1917년 11월에 결혼하였다. 다음 해 1월 그는 스테이크 서기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스테이크 부장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6년 반 동안 이 직에서 봉사하였다. 새로운 부장단이 개편되자 제이

보좌로 부름받았으며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12년간 봉사하였다. 스테이크가 분리되어 새로 형성된 마운트 그라함 스테이크의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6년 후에 십이사도 위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로 김볼 대관장님은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선교 사업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극진하다. “모든 나라에 선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또한 각 나라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까지 끌어 올리어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실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전보다 더 훌륭하게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각 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신전이 많이 세워지는 그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부모가 올바르게 생활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면, 오늘날에 당면하는 생활의 문제는 가정의 밤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그들은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주님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좀더 잘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몇년전 심장 수술을 받으셨으나 현재는 훌륭한 건강을 누리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김볼 자매님의 말씀을 잠시 빌린다. “나는 주님이 저의 남편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건강에 대하여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기적을 맞본 것이라고 느꼈니



김볼 대관장 부처



태너 부관장 부처



벤슨 회장 부처



롬니 부대관장 부처

다. 지난 20여년간 그에게는 힘이 넘쳤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의 생활은 교회에서의 활동의 연속이었다. 주님을 위한 봉사와 사랑에서 한 치도 빛나잔 적이 결코 없었다.

### 태너 부대관장

1973년 12월 30일 킴블 대관장님의 제일 보좌로 성임된 것은 같은 직에 성임된 네 번째 기회였다. 그가 처음으로 대관장단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때는 총관리 역원으로 단 3년간 봉사한 후...십이사도 보조로 2년간, 사도로 일년간...1963년 10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제이 보좌로 부름받은 때였다.

그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의 제이 보좌,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의 제일 보좌로 봉사하였다.

### 롬니 부대관장

성도의 빛 1974년 4월호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1941년 5월 23일 43세 때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에 의하여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성임되었다. 그는 1951년 10월 11일 사도로 성임되었다. 롬니 부대관장은 1972년 7월 7일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의 제이 보좌로 성임되었다.

### 벤슨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큰 신권의 직책인 거룩한 사도의 직을 받은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요 명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의 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은 너무도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나는 가까운 동료들에 대한 사랑과 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직책을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

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들의 지도력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벤슨 사도는 1899년 8월 4일 아이다호주 휘트니에서 조지 티 벤슨 이세와 사라 던클리 벤슨 사이의 11자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벤슨 사도는 농가에서 자랐으며 농사법을 공부했다. 그는 교회 외부에서는 농업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명성이 높다. 그는 드웨이트 디 아이젠하우어 대통령 임직 시에 농림 장관으로 일하기도 했었다.

벤슨 사도는 아내 플로라와 두 아들과 4딸과 30명의 손자 손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면서 그는 세계의 여러 곳을 여행하였다. 그가 이야기하는 곳곳마다 그곳 성도들은 그의 간증의 힘과, 주님과 성도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



# 아픈 마음을 위로하며

해롤드 비 리 대관장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수많은 가정에서는 가족을 잃고 영혼의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며 이해하고 현재의 고된 시련을 극복하여 미래를 내다보며 다음에 올 세상에서 소망과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메시지로 이해와 평화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경전에 기록된 약속을 환기시켜 드리고, 이와 같은 약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고 말씀하실 때 궁극적인 평안이 비롯되는 근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은 뒤 매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들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영원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줍니다.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이와 같은 사건은 경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건이 일어난 무서운 밤과 공의를 조롱거리로 만든 조급하고 불법적인 재판 절차에 대해 읽을 수 있으며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 숨지신 우리 주님의 고통스런 죽음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

하기 위해 사용한 새 묘지가 있는 갈보리 근처의 정원 무덤이 열린 것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경전으로 우리는 무덤을 지키는 정원지기인 천사들이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마 28:6)고 말한 영광스러운 개선의 외침도 알 수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주님이 최초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가 죽을 수 밖에 없는 몸을 지니고 계시던 때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대로 실제로 만져 볼 수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인격체 이심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첫번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사건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인 예언자 모세의 인도를 받는 고난받는 무리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준 예언자를 통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 모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사 26:19)라는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의 기록은 그 약속이 8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감명깊게 더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전을 읽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 27:52-53)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여러분, 그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이 열리며 그들의 몸이 나와서 산 자들의 땅에 걸어 들어와 많은 자에게 보일 것입니다. 미대륙의 예언자를 통해서도 부활한 몸의 완전함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고...완전한 모양을 갖추어 회복되리니 ...그렇게 하여 전체가 영적이며 불멸의 것이 되어 다시는 썩지 아니하리라”(엘 11:44-45)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죽음을 지나서도 또 다른 영화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한때 주님은 저 세상에 관한 모든 시현의 문을 열어 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같이 되풀이하셨습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5, 28-29)

죽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화로운 소망입니까.



“개인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하며 그후에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속죄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으므로 구세주의 부활에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에 대한 참조 구절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세주의 몸은 부활한 몸으로 나오기 전에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구세주는 부활하신 뒤 약 40일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어 제시면서 그들과 더불어 먹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셨다는 것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몸이 무덤에 있던 3일 동안 일어났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구세주의 몸이 무덤에 있던 3일 동안 일어난 것을 그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육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벧전 3:18-20) 그 다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가장 중요한 설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4:6)

진실로 우리는 “저들이 죽어 저들을 잃게 되었을 때 애통해야 하나 특히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를 위하여 슬퍼해야”(교성 42:45 참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안정과 위로를 주는 확신을 갖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대륙의 고대 예언자들도 알기쉬운 말로 개인은 누구나 지상 생활과 저 세상에서(야 4:12) 이러한 영원한 특권 중에서 최고의 등급에 속하는 것을 얻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백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하여, 우리들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하도록 권고하였음이요,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니이 25:23)

다시 말해서 개인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하며 그후에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써 구원받을 수”(신약개조 제3조)있게 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니일 19:14)의 구속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서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죄에서 구속받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으며 그는 그의 업적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경전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리라고는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임을 명백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에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그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9)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들 앞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거룩한 날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구속의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5,57)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각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교성 76:112) 즉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원의 계획을 주신 온 인류의 구세주의 속죄에 내포된 심오한 뜻을 더욱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간절히 기도드리며 여러분과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와 같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간증을 드립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아멘.”(교성 119:7) ㉞



*Harold M. Lee*

# 역사상 가장

**영**원한 관점에서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 세상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기록 정리할 때 대부분의 사건은 포함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우열이 가려지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개선의 입성을 한 일요일 아침까지 곧 구세주의 생애 중 마지막 사건이 일어난 일 주일은 현재 지상에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 주일이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 한 주일 동안 일어난 사건이 없다면,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부활 때 일어난 사건이 없다면 결국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은 기사는 경전에 기록된 그 주일의 모든 사건을 일일이 상세히 다루지 못하고 겨우 사건을 열거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는 한 날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한두 가지만을 어느 정도 상세히 다루고 기타 다른 사건은 일부만을 간단히 언급한다.

## 첫째 날(일요일)

일요일은 창세 이래 주일의 첫 번째 날로 되어 왔다. 이 특별한 일요일에, 곧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 주일의 첫 번째 날에, 구세주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등 그의 친구들과 안식일을 보냈던 작은 마을인 베다니(막 11:1)를 떠나 채 5킬로미터도 안되는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는 비탈길을 오르셨다.

예수님은 벳바게(막 11:1) 마을에 이르자 제자들 중 몇명을 보내시어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나귀 새끼를 구해 오라고 하셨다. 이와 같은 행동은 예언을 성취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화롭게 온다는 것을 암시해주었다.

마태는 “우리의 대부분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서 그 앞에 걸옷과 나뭇가지를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로다”(마 21:8-10)라고 외쳤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존경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은 무리들이 구세주를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는 이것이 메시아를 위해 예비된 성스러운 칭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일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지 않았는가? 그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다윗의 씨”(요 7:42)를 이은 유다의 후손이 아니었는가?

그는 마리아라 불리우는 처녀로부터 베들레헴 성에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는 애굽에서 나와 나사렛에서 자랐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며, 절름발을 걸게 하고, 장님을 보게 하며,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등 그가 행할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놀라운 기적”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지상의 만물과 인간의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예언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의 작은 새끼”(눅 9:9)를 타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었던 것이다.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영접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백성은 그가 이제 성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군대를 장악하고 그들로부터 원수를 물리쳐 승리하게 하여 지상에 평화와 정의와 의로써 지배되는 통치의 시대를 수립

\*루드로우 형제, 현재 교회 교과과정 계획 및 협의 책임자

\*\*사진, 도인 엘 그린 촬영

# 중요한 주일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하는 일 등을 포함해서 그에 대한 다른 예언 중에 일부를 성취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그의 과거의 행적으로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이다. 그는 분명히 예언자들의 나

머지 예언을 앞으로 성취하실 것이다.

역사와 예언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당시 신앙심 있는 유대인들이 범한 비극적인 과오는 그들이 구세주가 재림 때 행하셔야

겟세마네의 정통적인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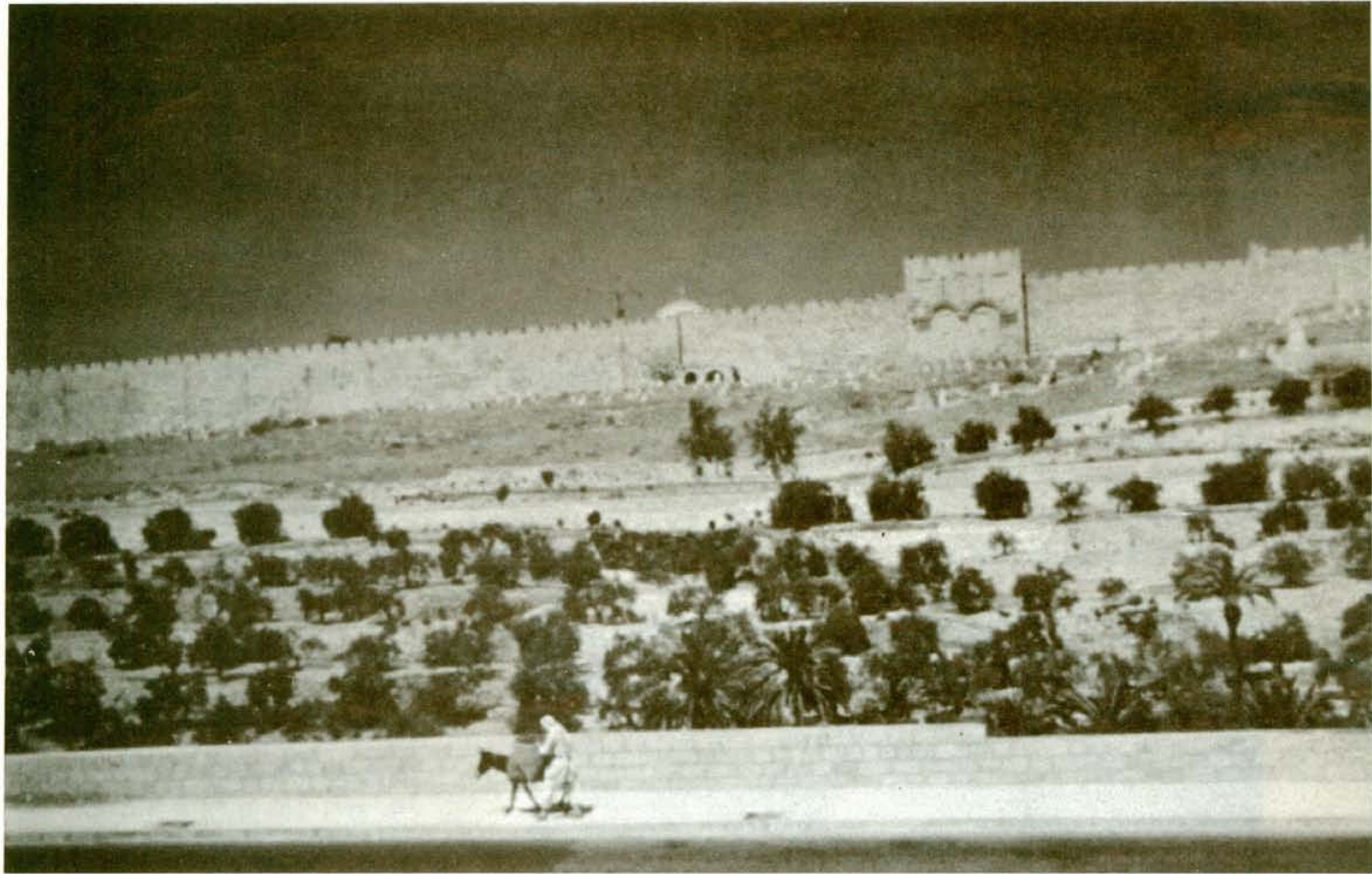


성도의 밭 1974년 4월호

할 일을 첫번째 오실 때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점이였다. 물론경 예언자인 아꿈은 메시야가 오실 때 유대인들은 “정도를 지나쳐”(야 4:14) 보기 때문에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구세주가 탄생하시기 수백년 전에 이미 예언했었다.

백성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외침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막 15:13)라는 것으로 바뀐 것은 구세주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바치라”(마 22:21),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 18:36) 등의 말을 한 그 주의 주말이 채 가기도 전이였다. 평민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배반하셨으며 따라서 그들도 그를 배반하는 것을 찬성하였던 것도 그 주의 주말에 일어났었다. 바로 그 첫번째 성지의 주일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마 21:9참조)라는 외침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외침은 감람산으로부터 계곡을 넘어 바리새인들과 일부 질투심 많은 종교 지도자와 세속의 지도자들이 모임을 갖던 성전 산까지도 들렸다. 그들은 구세주를 따르는 이러한 무리에 너무나 놀랐으므로 “...은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요 12:19)라고 감탄하며 소리쳤다.



구세주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장차 그곳의 주민에게 임할 멸망을 깊이 생각하시고는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도 그의 영혼의 번민은 계속되었으며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그의 말에 응답하였는데 어떤 무리들은 우리가 울렸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였다. (요 12 : 27, 29)

그후 구세주는 빛의 아들에 관해 설교를 하시고 백성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그들 중에 있

을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시고는 이렇게 훈계하셨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요 12 : 35-36) 그리고 나서 그는 “때가 이미 저물매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막 11 : 11), 나가셨다.

#### 둘째 날(월요일)

둘째 날인 월요일 이른 아침 구세주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마태는 그 여행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

무 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마태복음 21 : 18-20)

무화과나무를 시들게 한 이 사건은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는 그 사건이 구세주의 다른 기적에 비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그 전에 그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안을 주시었고 주로 그의 권세를 이로운 목적이거나 축복을 위해 사용하셨다. 실제로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어나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고 죽



기드온 골짜기, 뒤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보인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터, 오른쪽에 둥근 모양의 암석으로된 회교도 사원이 보임.

게 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건으로 위대한 교훈 하나를 배웠음에 틀림 없다. 다른 많은 것 중에서 그들은 틀림없이 구세주가 살리는 권세 뿐만 아니라 죽이는 권세도 가지셨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따라서 그들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그의 생명을 버리실 수가 있음을 알았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 주일이 끝나기 전에 이 교훈을 기억하게 해주는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제자들이 이 사건으로부터 배웠으리라고 생각되는 다른 교훈 하나는 그들이나 어느 누구도 그들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있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성도의 빛 1974년 4월호

맺은 듯이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의 잎과 열매는 함께 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감추었던 것이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일년 중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께에는 다른 무화과나무도 그러하였다.)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감추어 속였기 때문에 저주받았으며 어느 면에서는 “인간의 위선”(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30장, 제7단, 마지막 줄)을 나타내었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날에 일어났으리라 생각되

는 또 다른 사건은 성신을 깨닫지 못한 일이었다. 복음을 공부하는 일부 학생들은 마태복음 21장 12절과 누가복음 19장 45절의 내용 때문에 이 사건이 첫번째 날인 일요일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 11장 11절과 15절은 사건이 월요일에 일어났음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정확한 날짜가 어느 날이든 관계없이 구세주가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어쫓으셨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주일이었다. 그때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요 2:16)을 만든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때 구세주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공연하게 인정하였으므로 그는 경전을 인용할

때 성전을 “내 집”이라 일컬으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마 21 : 13) 주일이 다 지나가기 전에 구세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성전에 관해 말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마 23 : 38) 이같이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바뀐 것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구세주가 이같이 취급하는 것에 대해 몹시 노하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일반 백성들은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 (눅 19 : 47-4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세주가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그에게 나아오며 이들을 고쳐

주시는 것을 보고” 매우 불쾌히 여겼으며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마 21 : 15 참조) 분하였다.

마태는 이 사건의 종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 이르기를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예루살렘에서 본 감람산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마 21:16-17)

### 세째 날과 네째 날 (화요일과 수요일)

화요일과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은 함께 다루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건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전상으로도 어느 사건이 어느 날에 발생하였는지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록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사실을 보면 일요일과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 후에 백성들이 메시아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였을 때 세속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앞으로 미칠 지도력으로 위협을 느꼈으며 그에게 도전하여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평판을 나쁘게 할 것을 바라며 이렇게 행할 것을 결심했다. 따라서 그들은 애매하고 까다로운 질문을 짜내는데 시간을 허비하였고 이같은 질문으로 그들은 그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기를 원하였다.

구세주가 성전 산에 도착하셨을 때 질문을 갖고 최초로 그에게 나아온 무리는 성전의 교편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구세주가 어떻게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고 “그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 그들을 꾸짖으셨는가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의

깊게 준비한 질문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마 21:23)

구세주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응수하셨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마 21:24-25)

이들 대표가 자기들이 진실로 믿고 있는 것으로써 그에게 대답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비추어 그들의 대답을 생각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마 21:25-27)

그리고 나서 구세주는 질문자에게 향하여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라는 도전적인 서두로써 시작하여 청중에게 그의 마지막 세 가지 비유 즉 두 아들의 비유, 사악한 농부의 비유, 임금의 혼인 잔

치의 비유 등을 말씀하셨다. (마 21:28-46; 22:1-14 참조)

주님을 조롱하려고 시도한 두 번째 무리는 헤롯 왕을 숭배하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헤롯 왕과 로마 지도자들의 통치를 지지하고 어떤 새로운 종교 지도자의 출현을 봉쇄하려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애매모호하고 까다로운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대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마 22:17-21)

그 다음으로 구세주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한 무리는 사두개인이었다. 이들은 유대교의 일파로 바리새인들과는 상극이었으며 부활 등 많은 종교 문제에 대해 바리새인들의 의견과 대립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때 사두개인들은 일곱 형제와 차례로 결혼한 뒤 과부가 된 어느 여인이 당면한 매우 미묘한 경우에 근거를 둔 질문을 주님께 던졌다. 그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마 22

: 28)

구세주는 그 질문의 의도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임을 간파하시고는 영원한 결혼 관계는 지상에 있는 신권의 권세로 결정되며 따라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것을 지적하십시오으로써 그들의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셨다.

그후 주님은 그 질문의 요지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셨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마 22: 30-32)

그곳에 함께 있던 자로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구세주께서 사용한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재빨리 알아차렸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래 전에 모두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으니,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 있음에 틀림 없다는 것이었다.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라고 외쳤다. 이와 같은 논리는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아, “저희는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으니이다”(눅 20: 39-40)

그러나 마지막 무리들인 바리새

인들은 질문을 준비하였는데 그들 중 율법사 한 명이 주님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마 22: 36)라고 질문하였다. 마가는 이 질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막 12: 28)

하지만 구세주의 대답은 분명하고 명확하였다.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로 대답하셨다.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를 열심히 가르치라고 명한 말이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마 22: 37-39)

구세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뒤 질문자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즉시 “다윗의 자손이니이다”라고 대답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마 22: 42-46)

그다음 구세주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들이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서 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들의 거짓 가르침과 행함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는 자만에 빠진 자들을 가리키실 때 외식하는 자란 말을 자주 사용하셨으며,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마 23: 33)라고 부르면서 그의 꾸짖음을 마치셨다.

그후 구세주는 백성들에게 이곳에 많은 예언자들이 파송되었으나 백성들이 그들을 번번히 배척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셨다. 그는 성전에 관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마 24: 2)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있을 백성들과 성에 임할 멸망에 대해서도 선언하셨다.

그리고 나서 구세주는 감람산으로 가셨고 이곳에서 제자들은 그와 은밀히 만나 그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해서 하신 그의 예언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주제에 관한 구세주의 가르침은 복음서의 세장에 수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러나 구세주는 그의 가르침을 더욱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그의 가르침을 계시해 주셨다. 1서에 기록되어 있다. 구세주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이 일을 너희에게 이르노라.”(23절) 따라서 택함을 받고 구세주와 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결심한 자는 모두 이 영감받은



가르침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제자들이 제기한 특정한 문제에 대해 대답하신 뒤 구세주는 신약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 즉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필연적인 심판의 비유 등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행한 그날의 자기 가르침을 마치셨다.

그후 구세주는 밤을 새고 앞으로 다가올 고된 시련을 준비하기 위해 베다니로 돌아오셨다.

####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목요일과 금요일)

경전에는 다섯째 날인 목요일의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별로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그날 어느 때에 가롯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 주려고 그들과 함께 음모를 꾸몄다고 되어 있다. 구세주도 역시 제자들에게 그들이 유월절 축제를 지키게 될 것에 대해 지시를 주셨다.

유월절 만찬 때 몇 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 만찬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어느 “집 주인”의 큰 다락방... 곧 “객실”에서 베풀어졌다. (막 14:14-15 참조) 여기에서 가롯 유다가 구세주를 배반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주님의 만찬도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구세주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이 의식을 계속 행하도록 이르셨다.

유다가 모임에서 떠난 뒤 구세

주는 남아 있는 제자에게 이같은 말로 새 계명을 주셨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그가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고 권고하셨던 것도 바로 이때였다. 구세주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곧 그들을 떠나게 되나 그들을 쓸쓸하게 내버려두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요 14:16) 곧 성신을 보내실 것임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는 성신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고 설명하셨다.

그후 구세주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에서 그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요 15:1,5)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구세주는 마치 “대제사장의” 기도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1-3)

구세주는 “때가 이르렀사오니”(요 17:1)라고 말씀하신 뒤 곧 다락방에서 나오시어 감람산과 겿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시작하셨으며 겿세마네 동산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가 아담과 이브의 최초의 범법을 위해 속죄하신 곳도 바로 이곳이며, 온 인류가 죄를 회개한다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그들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신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겿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후 3일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은 구세주가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요 12:27)라고 말씀하실 만큼 매우 중요하였다.

구세주는 겿세마네 동산을 떠나 시자마자 곧 유다와 그를 재판하기 위해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을”(눅 22:52) 만나셨다.

그날 밤 동안 그후에 일어난 사건과 그 다음 날(금요일)에 일어난 주요 사건은 네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해 두었다. 이와 같은 사건에는 그가 대제사장(가야바)과 산헤드린 앞에 나가시어 불법적인 재판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이 공회에서 그는 최초로 선동죄(평화를 교란하는 자)의 혐의를 받았으나 나중에 유대 율법 중 가장 중죄인 신성 모욕죄(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속임)로 고소당하셨다.

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

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마 26:63)고 직접 질문을 받으셨을 때 똑똑하고 분명하게 “내가 그니라”(막 14:62)고 대답하셨다. 배도자인 대제사장은 이렇게 소리쳤다.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마 26:65-66)

이와 같이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같이 속였다고 하는 죄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자 곧 하나님의 성스러운 아들인 예수님이 신성 모독 죄를 범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아담의 타락 이래 육체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것이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하는 권능은 로마의 법령에 의해 유대인의 평의회에서 거두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은 사형에 대한 공식적인 선고를 내려질 수 있게 그를 빌라도에게 데려 갔다.

이리하여 구세주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인도되어 재판받게 되었는데 빌라도는 원래 가이사라에 살던 유대의 총독이었으며 유대인의 축제 동안 우연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빌라도는 밖으로 나와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들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은 로마 법에서 가장 중한 죄로 다루는 대 반역죄로 변경되었다. 구세주에 대한 반역죄를 뒷받침 하기 위해 산헤드린의 회원들은 구세주가 백성들로 하여금 가

이사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고 거짓으로 증거하였고, (실은 예수님은 “가이사라는 것은 가이사에게…바치라”(마 22:21)고 하셨다.)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 하였다고 고소하였다. (눅 23:2).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직접 “네가 유대인의 왕이나”(눅 22:3)고 물었을 때 구세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 18:36)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안 빌라도(눅 23:4)가 구세주를 석방

---

“그들이 고소한 신성 모독 죄는 로마 법에서 가장 중한 죄로 다루는 대 반역죄로 변경되었다.”

---

해 주려 하자 한 제사장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눅 23:5) 모반을 가르쳤다고 주장하였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자, 갈릴리 지방의 영주로서 유월절 절기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헤롯에게 그를 보내어 재판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헤롯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다시 산헤드린의 위원들은 그를 빌라

도 앞에 인도하였다. 그들은 빌라도의 의견과는 달리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을 결심하고 있었다.

빌라도는 여전히 구세주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저를 때려서 놓겠노라”(눅 23:16)고 말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절기 동안 죄인들 중 하나를 감옥에서 석방해 주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라고 상기시켜 주고는 자기는 이 전례를 기꺼이 적용하여 예수를 석방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바라바를…놓아 주소서”(눅 23:18)라고 소리질렀다. 이리하여 민란과 살인으로 인하여 옥에 갇힌 자는 석방되었으나 무죄한 자는 그대로 남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기를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느냐고 하였을 때 그들은 놀랍게도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눅 23:21)라고 외쳤다.

빌라도는 자기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으며 그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크게 비난하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마 27:25)라고 소리질렀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요 19:12)라고 말하였을 때까지만 하여도 빌라도는 구세주를 때리고 징계하여 석방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조소는 가이사에게



고든의 감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으로 많은 사람이 숭배하는 곳임.

서 모든 권세를 받은 빌라도에게는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박는 것을 찬성하고 예수님을 매질하도록 그의 군병들에게 넘겨주었다.

그후 끌고다로 향하는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의 길이 따랐으며, 이곳에서 구레베사람 시몬은 지친 구세주가 십자가를 운반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

빌라도는 일찌기 히브리어와 희랍어와 라틴어로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성도의 빛 1974년 4월호

새기도록 명하였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빌라도로 하여금 “유대인의 왕”이라 새기게 한 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변경시키려 하였을 때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요 19 : 21-22)라고 대답하였다.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때는 여섯째 날(금요일)의 삼 시쯤(오전 9시)이었다. 못박힌 고통에도 불구하고 구세주는 나중에도 마 군병들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 : 34)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

오정이 되자 큰 지진이 일더니 여러 가지 일이 생생하였고 성소의 휘장도 찢어졌다. 해도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눅 23 : 44)되었다.

구세주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 : 46)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을 때는 오후 세 시 즈음이었다. 그후 그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요 19 : 30) “아버지여 내 영

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 : 46)라고 말씀하셨다.

이리하여 아버지에게서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부여받았던 그분은 육체의 죽음이 정복되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

종교적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 시체를 매장하지 않은 채 버려 두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몰이 다가오자 구세주를 따르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의 시체를 내려 서둘러 매장할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였다.

이같이 여섯째 날인 금요일은 끝났으며 아마 이날은 세계 역사상 가장 침울한 날이라 할 수 있겠다.

#### 일곱째 날(토요일)

실제로 신약에는 구세주의 시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 일곱째 날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언급된 것이 없다. 네 복음서에 기록된 것으로 가장 광범위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누가가 간결하게 언급한 것이다. 그들은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눅 23 : 56) 하지만 그 후 베드로가 일곱째 날에 일어난 일 몇 가지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였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

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베드로전서 3 : 18-19 ; 4:6)

구세주가 아직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앞으로 곧 자신이 하게 될 몇 가지 일에 관해 암시해 주셨는데 이는 그가 회개한 도적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 : 43)고 약속하신 것이었다. 성역을 베푸시던 초기에 구세주는 내세의 영의 세계에서 행할 그의 활동에 대해 예언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요한복음 5 : 25 -27)

---

“아버지에게서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부여받았던 그분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

---

주님은 이 경륜의 시대의 제 6대 대관장 조셉 에프 스미스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그날에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제시해 주셨는데 이 날이야말로 영원토록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중요한 날로 약속되어 있다. (멜기세덱 신권만 교재, 복음 교리, 제 2권, 제 37과 “죽은 자의 구속에 대한 시현”참조)

물론경에도 예수님의 시체가 예루살렘의 무덤에 안치되어 있던 일곱 번째 날에 예수님이 행하신 활동 몇 가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 구세주가 어둠 속에서 미대륙의 니파이 백성들 중 살아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날도 바로 이날이었다. 그때 그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으나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말씀하시던 중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었느니라. 내가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며 나로 인하여 아버지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백성에게로 왔으되 저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울 것에 관하여 기록된 경전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며, 나의 이름을 믿는 자들도 이같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예수의 시체가 안치되었던 무덤

무덤 안에서 본 "부활의 정원"



보라 나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르며...”(니파이삼서 9:15-17)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일곱째 날은 암흑의 날이었으나 그것은 역사상 가장 영화스러운 새벽이 터오기 전의 한날 짧은 밤의 어두움에 지나지 않았다.

#### 여덟째 날(일요일)

여덟째 날에 부활이 있었지만 실제로 경과된 시간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일요일에 베다니를 떠난 이래 채만 일 주일이 되지 않았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구세주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 유향을 가지고 그의 무덤에 왔을 때는 “주일의 첫날...아직 어두울 때”(요 20:1)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한 천사가 곧 그들에게 구세주의 시체가 어찌하여 그곳에 없는지 설명해 주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마 28:5-7)

이같이 구세주가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영원히 육체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고 모든 인간에게 내세

---

“어두움과 절망은 구세주가 부활하신 날의 빛과 기쁨으로 변했다.”

---

의 삶을 보장해 주셨을 때 금요일의 어두움과 절망은 구세주가 부활하신 날의 빛과 기쁨으로 변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상고해 볼 때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 또 있을까?

그 날이 끝나기 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외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문자 그대로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다. 이는 마태가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 27:52-53)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경 백성들도 이외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레이먼인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구세주의 부활이 동방 대륙에 있는 뒤 미대륙에 있는 성도들의 많

은 몸이 “죽음에서 일어나 많은 자 앞에 나타나 저들을 가르”(니삼 23:11)켰기 때문이다.

그후 수 주일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외의 여인들, 엠마오(눅 24:13)로 가던 두 제자, 베드로, 부활하신 날에 열 한 사도, 부활하신 지 일 주일 후에 열 한 사도(도마도 함께 포함됨), 디베라 바다에서 일곱 제자(요 21:1,2), 갈리리 산에서 열 한 제자, 한 번에 500여명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때의 제자들(행 1:9)등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외에도 물론경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2500명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후 그보다 더 많은 무리에게 나타나신 것(니삼 17:25)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역사상 가장 주의깊게 기록된 사건 중 하나인데 이는 그 사건이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일에 발생한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구세주의 지상 생활 중 마지막 주에 발생한 주요 사건을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㉞



# 구조대

매리 조이스 캄스 글  
래리 윈보그 그림

희  
망

1974년 4월호

**몇** 명의 소년단원과 함께 차가운 빗속에서 주의 사항을 듣는 에디의 가슴은 공포로 마구 뛰었다. 그들은 각기 흩어져 계곡과 숲과 좁은 골짜기로 다니며 그날 아침 양노원에서 나온 노인을 찾아야 했다.

“그 할아버지는 잘 견지를 못하십니다. 지금쯤은 의투도 구두도 없을지 몰라.” 단장은 말을 계속했다. “너무 힘이 없어서 누구에게 구원도 청하지 못하고 어디엔가 누워 계실지도 몰라. 이같이 비가 오는 때는 시간을 다투어 일을 해야 해. 그래서 너희들의 도움을 청한 거다. 자 빨리 시작하자!”

소년들은 지명받은 곳으로 각기 재빨리 흩어졌다. 처음에 그들은 서로 시야 밖으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그러나 에디는 허리까지 올라오는 잡초와 관목을 이리 저리 헤치며 나아가다가 문득 자기 혼자만 있게 된 것을 알았다.

“아이들과 함께 험한 산길을 등산하는 것은 재미

있는 일이야. 좀 고되기는 하지만.” 에디는 관목을 헤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오른쪽에 웅덩이가 있는가 하면 왼쪽에는 숲이 나왔으며 에디는 이 모든 곳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다. 이리 저리 헤치며 찾는 동안 그가 입은 판초가 나무에 자주 걸렸으며 비를 맞은 옷은 몸에 달라 붙어 차가웠다. 바지는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장화 한 쪽의 무게가 5파운드나 되는 것같이 느껴졌다.

마침내 에디는 잠시 쉬어서 장화를 씻을 양으로 젖은 통나무 그루터기에 앉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피곤하기만 했다. 그러다 에디는 24시간도 더 오랫동안 이 비바람 속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에디는 자기만을 생각했던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으며 할아버지를 빨리 찾고는 집에 돌아가 몸을 따뜻이 하고 옷을 말리겠다고 생각했다.

“가시랑 진흙 때문에 골짜기 주위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라고 혼잣말로 말했다. 에디는 자기가 급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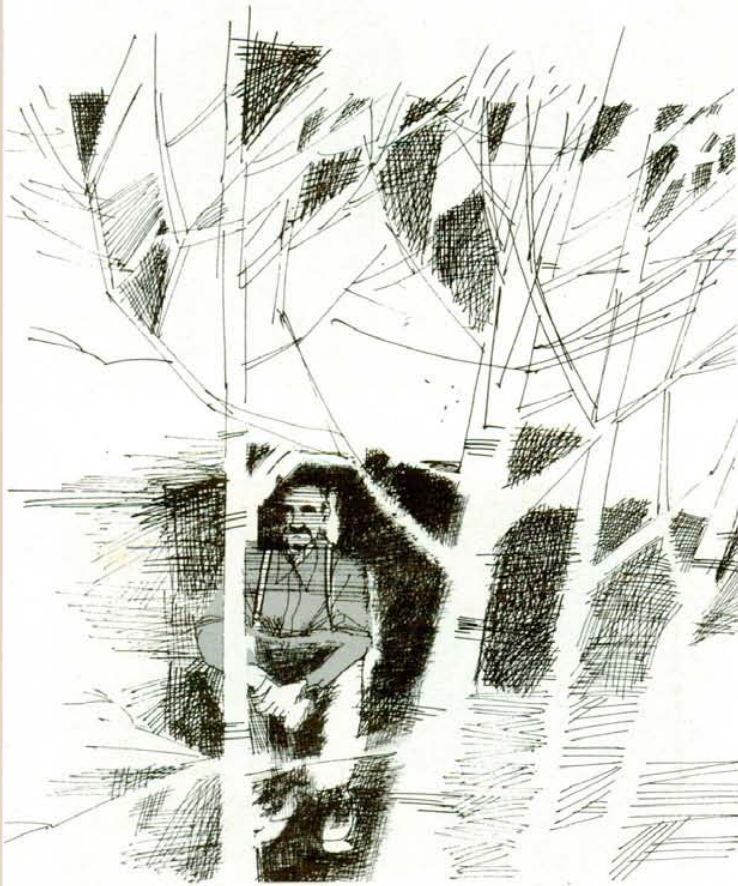


오는 바람에 폭풍우 속에 누워  
있는 할아버지를 지나친 것은 아  
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몸을 떨  
었다.

에디는 배낭을 바꾸어 메고 무거  
운 지팡이를 들고는 좁은 냇물 양편  
으로 길게 열지어 있는 미끄러운 바위  
를 따라 다시 걸어 가기 시작했다. 진  
흙 투성이가 된 장화 밑으로 돌이 미끄  
러지고 구르기 때문에 다리가 몹시 피곤  
하고 아팠으나 장화가 발목을 지탱하여 주  
는 것이 고맙게만 느껴졌다. 에디는 할아  
버지가 좋은 구두를 신고 계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신는 가벼운 실내화를 신고 계시지나  
않나 하고 생각했다. 그 소년은 어떤 사람이 폭  
풍우 속에서 행방불명 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모퉁이를 돌  
자 붉은 섬광이 번쩍였다. 에디의 가슴은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꿀짜기 밑을 내려다 보니 맞은 편 쪽에 한 사람  
이 바위 중간의 움푹 들어간 곳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 에디는 도움을 구하기 위





해 소리를 지르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한다면 바위 밑에 있던 사람은 놀라서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도망가려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갑자기 에디는 전에 배운 울빼미 울음 신호가 생각났다. 울빼미의 울음 소리 세 번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으나 이 소리는 소년단원을 부를 수 있는 소리였다.

계곡의 미끄러운 돌을 따라 올라간 에디는 백미터 가량 뒤로 물러나와 신호를 보냈다. 두 번째 신호를 보낼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나 세 번째 신호를 보낸 후 온 정신을 귀에 쏙아 들었더니 가냘픈 응답 신호가 들렸다.

에디는 다시 할아버지가 보이는 곳으로 걸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지점으로 인도하는 낮은 신호를 보냈다.

할아버지는 한번 넘어졌다. 할아버지는 일어나 앉더니 울빼미의 울음 소리를 유심히 들었다.

곧 진흙 투성이의 소년단원 한 명이 계곡에 나타났

다. 나타난 단원에게 소리내지 말라고 신호를 하면서 에디는 재빨리 언덕을 내려가 그에게 할아버지를 발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야겠어.” 에디는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까지 가시기 전에 소리를 질러서는 안돼. 할아버지가 놀라시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달아나려고 하실지 모르거든.”

또 다시 혼자가 된 에디는 골짜기를 넘어 할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하여 걸어갔다. 알게 흐르는 물을 침범거리며 휘파람을 불며 걷던 에디는 쑥 내민 바위 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는 척하였다. “안녕하세요?” 그는 할아버지를 불렀다. “제 음식을 잡썬 보시겠어요?”

에디가 가방에서 샌드위치와 보온병을 꺼냈을 때 그는 할아버지의 푸른 눈에서 굶주림에 지친 모습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서 떨리는 손을 내밀어 빵과 우유를 받았다. 에디는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어 할아버지의 몸에 둘러 드렸다.

음식은 충분했다. 그러나 에디는 목이 메어 빵 한 조각도 삼킬 수가 없었다. 만일 자기가 이 불쌍한 할아버지를 못본 채 지나쳤다면 어찌되었을까 하는 생각만이 에디의 머리를 채웠다.

“산보를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었다.” 식사를 마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피곤한 어린 아이처럼 담요를 다시 몸으로 당겨 덮고는 잠이 들었다.

에디가 정신을 가다듬었을 때는 이미 구조차 나온 경비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곧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갔으며 에디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다.

여전히 비바람이 계속 불어 닥쳤으며 에디는 몸이 젖어 춥고 피곤하였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마치 햇빛이 내려 비추듯이 따스한 느낌이 들었다. ☐

# 첫번째 부활절

마태복음 26, 27장  
 마가복음 14, 15장  
 누가복음 22, 23장  
 요한복음 18, 19장



1. 사악한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와서 예수님을 잡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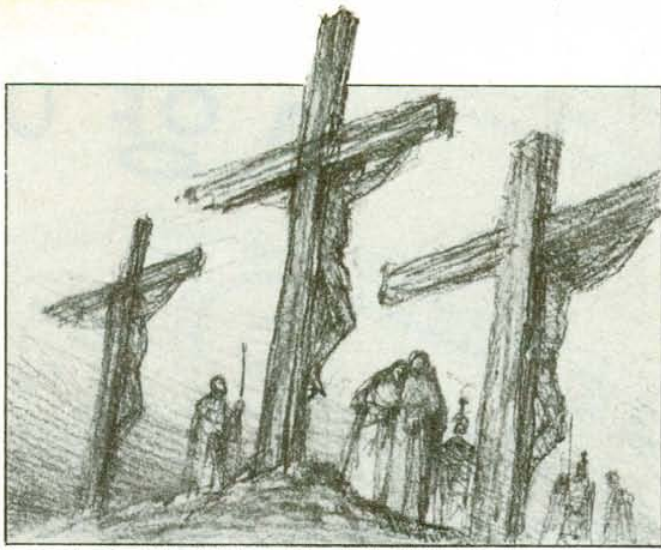
4.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근처에 있는 무덤에 안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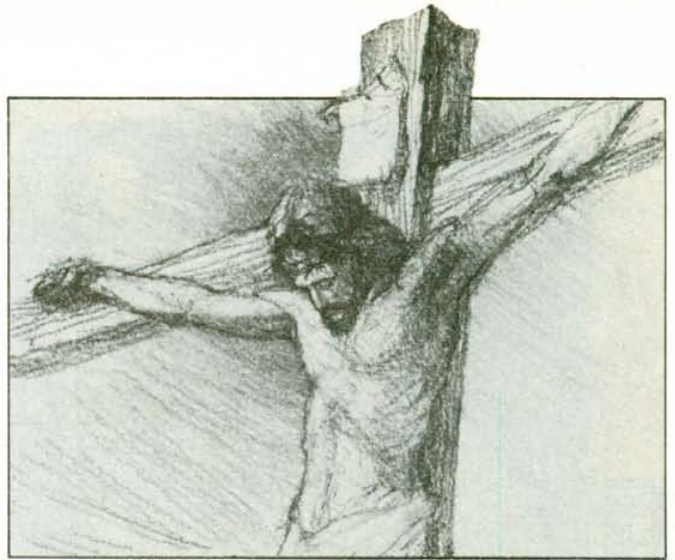
5.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무덤 문을 큰 돌로 막고 병사들을 시켜 그 곳을 지키게 하였다.



8. 막달라 마리아가 소식을 전하고 다시 무덤가로 돌아왔다. 울면서 무덤가에 서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후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



2. 그들은 갈보리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두 도둑 사이에 세웠다.



3.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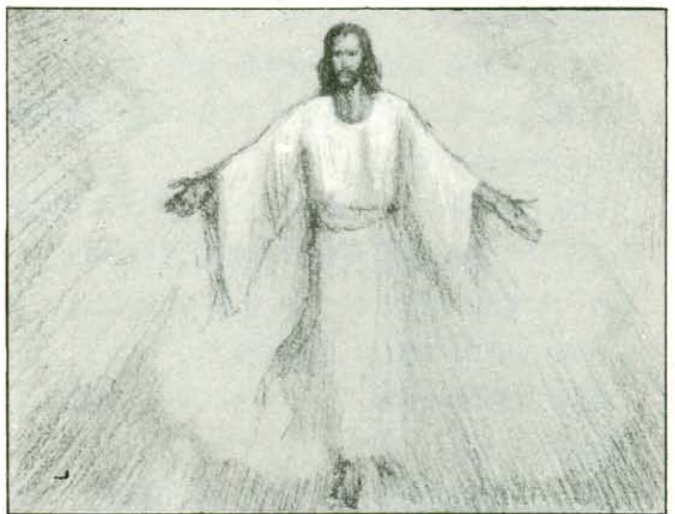
6. 안식일이 지나자 몇몇의 여인들이 무덤가로 갔다. 그러나 파수꾼도 없고 무덤을 막았던 돌도 열려져 있었다.



7.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말했다. 주의 사자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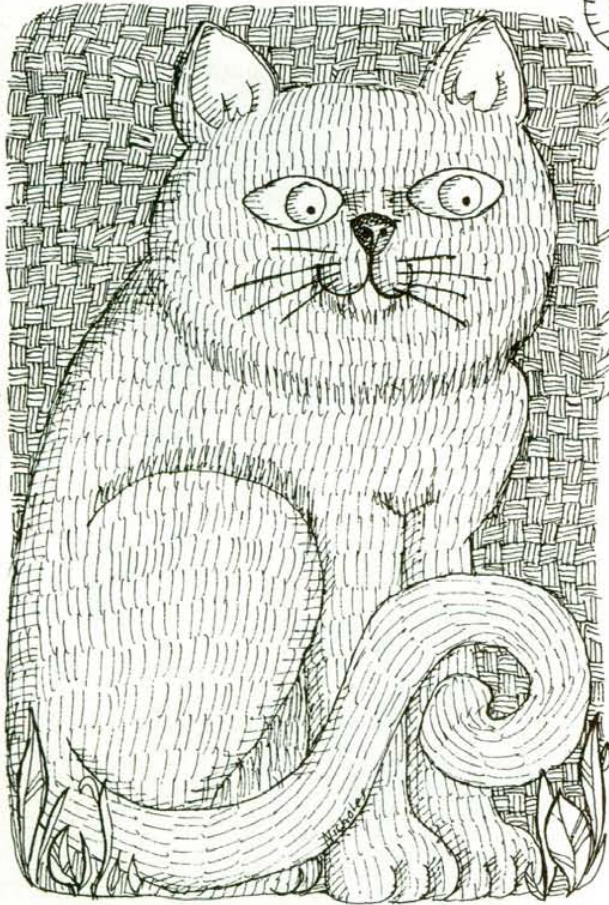


9.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사십일간 모여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던 방으로 오셨다.



10. 어느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들리워 올라가셨다. 두 천사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다.

# 고양이



## 옛날 이야기 베티 허브카 글

때까지 계속 뿌리를 이로 갈아 내었습니다. 완성이 되자 고양이와 쥐는 배 위로 올라 타고는 육지를 향해 노를 저어 갔습니다.

육지까지의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식량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피로와 공복이 엄습했습니다.

“참! 왜 먹을 걸 가져 올 생각을 못했지?” 고양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허기가 저서 쓰러질 것같애.”

“나도 그래.” 쥐가 말했습니다. “노를 그만 짓고 낮잠이나 자자. 시간이나 빨리 가게 말야. 한잠자고 깨어나면 우리 보트가 해변에 닿아 있을지도 모르거든.”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고양이가 맞장구쳤습니다. 그러고는 보트 끝에 가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쥐도 몸을 도사렸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것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쥐는 보트가 먹기 좋은 마니옥 뿌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조금만 먹겠다고 생각하면서 보트의 밑바닥을 긁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양이는 긁는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양이가 물었습니다.

쥐는 긁어 먹기를 멈추고는 자는 척했습니다.

“꿈을 꾸었나?” 고양이는 더 이상 소리를 들을 수 없었으므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잠이 들자 쥐는 또 다시 보트의 밑바닥을

**옛** 날에 고양이와 쥐는 매우 좋은 친구였습니다. 고양이와 쥐는 고양이가 먹을 새와 쥐가 먹을 마니옥 뿌리가 많은 아름다운 섬에서 평화롭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고양이가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섬에서 사는 것도 이제 지쳤어. 먹을 거라곤 새 밖에 없으니 따분하지 뭐니.”

“그럼 우리 육지로 가보는 게 어때?” 쥐가 제안했습니다. “거기로 가면 마을에 훌륭한 집이 있으니까 너는 사냥하지 않아도 먹이를 얻을 수 있고 나는 땅을 파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거야.”

“그거 묘한 생각인데.” 고양이는 맞장구쳤습니다. “하지만 이 섬을 어떻게 떠난다?”

“내가 마니옥 뿌리로 보트와 노를 만들께.” 쥐가 말했다.

그리하여 이 두 친구는 큰 마니옥 뿌리를 찾았습니다. 쥐는 고양이와 자기가 탈 수 있을 자리를 만들

# 와 쥐

굶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굶는 소리에 또 잠이 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고양이가 물었습니다.

쥐는 또 다시 굶기를 멈추고는 자는 척했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자 또 꿈을 꾸었다는 줄로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고양이가 또 다시 잠이 들자 쥐는 세 번째로 또 다시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쥐가 파먹던 곳으로부터 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쥐가 보트 밑에 구멍을 뚫어 놓았던 것입니다.

고양이는 물이 온 몸을 적시자 놀라 깨었습니다.

“가라 앉는다!” 그러자 고양이는 쥐가 파먹은 구멍을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마니옥 보트에서 고양이와 쥐는 뛰어내려 헤엄을 쳐 나가야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육지에 닿기만 하면 너를 잡아 먹을테다!” 고양이는 이렇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육지에 닿았습니다. 쥐는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피를 짜보았습니다.

“지금 나를 먹지 마.” 쥐는 말했습니다. “내 털도 마르고 네 아름다운 털도 마를 때까지 기다려 줘.”

고양이는 젖은 것을 싫어 했기 때문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곧 고양이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몸을 부드럽게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몸이 다시 부드럽고 윤택이 나지는 것에 정신이 팔려 쥐가 구멍을 파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둘의 몸이 다 말랐습니다. “이젠 너를 먹어



야겠다.” 고양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덮쳤습니다. 그러나 쥐는 곧 만들어 놓은 구멍으로 뛰어 들어 갔으므로 고양이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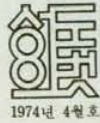
고양이는 구멍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나오겠지.”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쥐는 또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쥐는 나무 밑을 파고 또 파 마침내 다른 편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살짝 빠져나온 쥐는 근처 마을에 있는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고양이는 쥐가 나무 맨 끝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양이는 앉아 있는 구멍에서 쥐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결코 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고양이는 쥐가 굶는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깊이 잠드는 법이 없으며, 쥐는 항상 고양이가 구멍에서 자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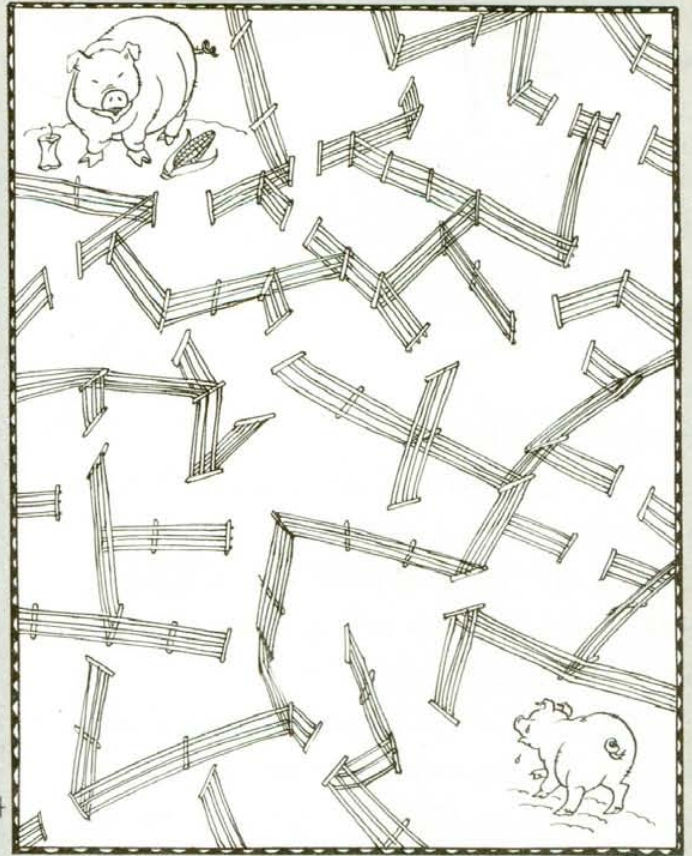
# 심심풀이



## 미로를 찾아

앤 스테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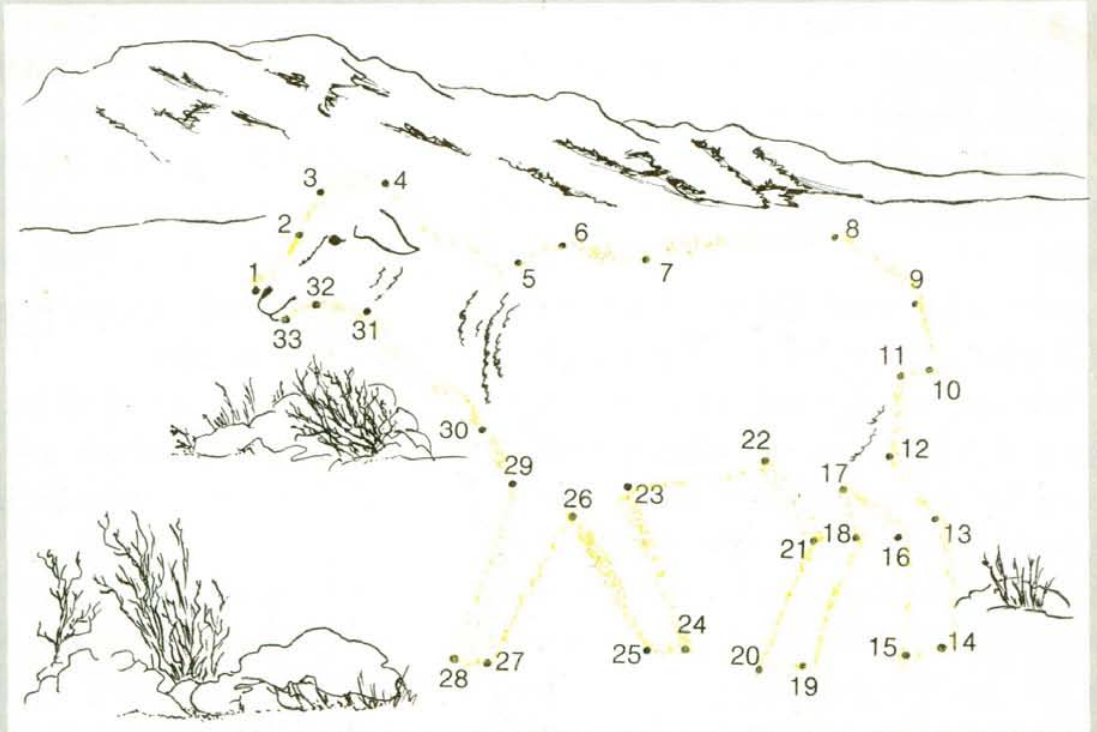
새끼 돼지가 집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 점잇기

캐롤 코너

1 번에서 33번까지 연결하면 가족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엄**마가 음식을 만들 때 쓰는 노란 쟁반이 마루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쟁반은 구하기 힘들었고 값도 비싼 것이었다.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이 쟁반을 사용하곤 하셨다. 앞으로 엄마는 어떤 그릇으로 음식을 만들까?

내가 접시를 닦을 차례가 되었다. 조심해야지 하고 생각했으나 그만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깨진 조각을 치워 버기리도 전에 엄마가 들어 오셨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엄마는 꾸중하지도 않았고 우시지도 않았다. 엄마는 몸에 지니고 계신 특성인 침착함을 보여주셨다. 엄마는 앞으로 음식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을 쓸까 걱정하지 않았고 바로 내 자신에 대해 걱정하였다. 이같이 사소한 일로 내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말이다.

음식을 만들 때 쓰는 노란 쟁반을 갖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해심이 많은 어머니를 가진 것은 더욱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1974년 4월호

## 노란 쟁반

카이 라이만 감독



# 어떻게 유혹에 대처하나?



1974년 4월호

## 경전을 상고한다

“**0**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요한 계시록 21:7)

고대나 현대 중 어느 시대에서나 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을 보면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오거나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3-15)

물몬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백성들 간에 이러한 차별이 생기게 된 것은, 사탄이 크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 잡아 온갖 간악함을 행하도록 선동하며...이같이 사탄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이미 악마의 유혹에 몸을 맡기고 악마가 원하는 대로 끌려 다니며...”(니파이삼서 6:15-17)

예수님도 역시 온갖 유혹을 받으셨다. 엘마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엘마서 7:11)

천사는 베냐민 왕에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며 욕신의 고통과 주림과 갈증을 겪으며, 이리함으로 기력이 진하시리니, 죽음은 아닐망정 이토록 인간이 감당치 못할 온갖 고난을 겪으실”(모 3:7) 것이라고 말했다.

경전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아빈아다이는 예수님이 “유혹을 견디어 지지 아니하시리...”(모 15:5)라고 예언했다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으나 개의치 아니하셨다.”(교성 20:22)

주님은 우리가 유혹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고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고 찌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악마의 힘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경전에 보면 예수님은 “욕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욕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고”(앨 7:12) 유혹을 당하셨다.

베드로는 “주께서 경전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벧후 2:9) 줄은 아신다고 말했으며, 말일에 주님은 자신이 “인간의 약점을 아시며 유혹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교성 62:1)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야기하는 몇 가지 방법은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탄의 유혹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하신 것이다.

경전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고 되어 있다. 예수님이 유혹에 대항하셨을 때 사탄은 처음에 조롱하듯이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다. 사탄은 이 제의를 거절당하자 즉시 다른 방법으로 유혹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버리라...” 이때에도 사탄은 예수님에게서 거절당하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사탄은 최후 발악으로 예수님에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역시 사탄의 제언을 거절하셨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버렸다. (마 4:3-11 참조)

그러므로 경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약 1:12)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엘마도 그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앨 37:33) 가르치라고 말했다.

기도는 유혹의 힘을 대항하는 방어물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행여 마귀가 너희를 피어 사로잡을까 염려함이라...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사로잡아 밀같이 채로 치려 하는도다.”(니파이삼서 18:15, 18)



## 유혹을 피하고 유혹에 대항하여 기도로 도움을 간구한다

로버트 제이 매튜스

모로나이는 이같이 권고했다.

“너희는 시련의 날에 지혜로우며 너희에게서 부정  
한 것 모두를 털어 버리라...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  
음으로 간구하여 유혹에 빠지지 말며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물몬서 9:28)

엘마도 역시 이런 말로 권고했다. ...항상 깨어서 쉬  
지 말고 기도하여 악마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  
고 악마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며...보라 악마  
는 너희를 좋은 것으로 상 주지 아니하리라.”(엘 34  
:39)

그러나 어떤 이들은 도움을 주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  
였고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께 매일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게 하는 교회 의식도  
지키지 아니하였던”(엘 31:10) 것이다.

이외에도 주님은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방편을 마련해 주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  
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주 앞에 너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고 기록하신  
주님의 이름을 따르며,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여 감  
당할 수 없는 시험이 너희를 뒤덮지 않게 하고, 성신  
의 인도로...고난을 오래 견디어낼지어다.”(엘마서 13  
:28)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사랑  
하는 아버지는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신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이르노  
니, 너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라. 이는 징계함으로써 저들이 모든 일  
에 있어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  
는 것이니...”(교리와 성약 95:1)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  
들과 같이 너희를 매우 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  
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에게는 의의 평  
강한 열매를 맺나니”(히브리서 12:7, 11)

주님은 충실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  
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요  
한계시록 3:10)

결국 바울은 이같이 명확하게 말했다. “악에게 지  
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

따라서 인간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의 종들  
의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약속된 성령을  
지니게 하노니, 이로써 구속의 날에 인봉되어 유혹의  
시간이...임할지라도 타락하지 않게”(교성 124:124)  
된다.

끝으로 경전에 기록된 권고를 보면 우리는 서로 유  
혹을 이기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  
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  
게 하라”(누가복음 22:31-32)

바울도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  
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범  
을 성취하라”(갈라디아서 6:1-2)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그리스도께  
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  
으니라”(로마서 15:1, 3)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  
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사도행전 20:35)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는 것같이 우리도 서로  
도와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유혹에 대처해야  
하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유혹을 피하고 유혹에 대  
항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해 하나님이 도와 주시  
도록 기도하라. ㉮

# 히버 시 킴볼



1974년 4월호

사도들의 생애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약 력

우리는 이번 호부터 새로운 일련의 기사를 제공하여 보다 가치있게 봉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교회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교회 서적은 많으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특히 비용 때문에 번역이 되지 못한 서적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때에 성도의 벗사는 작가와 출판사로부터 그러한 서적을 본 잡지에 연재로 실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우리는 심사숙고하여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들을 영적으로 고취시키며 많은 지식을 넓히게 하는 서적을 선정하였다.

제1회로 레온 하트슨의 사도들의 생애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가 선정되었다. 하트슨 형제는 이복음의 경륜 시대에 살던 여러 사도들의 생애 중에서 영감의 이야기를 수집 편찬하였다. 이 이야기는 산 복음의 원리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보다 넓혀 줄 것이다. 우리는 이 책과 그의 다른 책을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데저렛 출판사와 하트슨 형제에게 감사드린다. 독자의 애독을 바란다.

래리 힐러  
편집장

1801년 6월 16일 미국 버몬트주 쉘든에서 솔로몬 킴볼과 안나 스펀딩 사이에서 태어남.

1831년 가을 처음으로 선교사를 만남. 1832년 4월 칙례받음.

1835년 사도로 부름을 받아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 됨.

1835년 캐나다와 뉴잉글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직함. 1837년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도록 부름받음. 일년이 채 못되는 선교 기간 동안 1500명에 대한 칙례를 책임짐.

1840년 다른 사도와 함께 영국으로 다시 돌아 감.

1847년 첫번 개척단 중 일원으로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 함.

1847년 브리감 영 대관장의 제일 보좌로 지지되어 1869년 6월 22일 6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봉직함.

히버 체이스 킴볼은 모범적인 일생을 살았다. 그는 예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으며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교회사상 히버 시 킴볼과 같이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은



“어린 아이의 신앙”

많지 않다. 그는 두려움을 몰랐으며, 아무도 그의 고결성과 교회에 대한 헌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1834-1835년 겨울 커틀랜드에 신학교가 세워졌다. 이 학교에서는 한 사람을 지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들려 주게하는 관습이 있었다. 어느 날 히버 시 킴볼은 신앙이라는 주제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최근에 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킴볼 형제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며칠 전 나의 아내는 외출하면서 딸 헬렌 마에게 접시를 만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그 당시에는 접시가 귀하고 비싸며 구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딸에게 자기가 나간 동안에 하나라도 깨뜨리면 돌아와서 벌을

\*레온 알 하트슨, 편찬가. 사도들의 생애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솔트레이크시 : 데저렛 출판사, 1973 년

주겠다고 말했다. 킴블 형제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아내가 나간 뒤에 나의 딸은 접는 식탁의 판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접시를 깨고 말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과나무 밑에 들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돌아 오셔서 자기를 때리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돌아 오자 헬렌에게 약속한 대로 벌을 주려 했습니다. 엄마는 헬렌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아이를 꾸짖을 힘이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손을 들어 때릴 수가 도저히 없었던 것입니다. 후에 헬렌은 엄마가 자기를 때리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다고 말했습니다.”

히버 형제는 짙막한 이 이야기를 하다가 멈추었다. 청중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언자 요셉도 역시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형제들에게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앙이라고 말했다. “부모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 가서 자기가 마음 속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간구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킴블 형제를 칭찬하고 “때를 잘맞춘 일화”라고 덧붙였다.

**“주먹같은 눈물이 뺨을 적셨다”**

1837년 6월 4일 일요일에 [히버

시 킴블의 말에 의하면] 예언자 요셉은 커틀랜드 신전 벨기세택 방구석에 있는 성찬 탁자 위편 연단 앞에 앉아 있는 내게 오셔서 “히버 형제여, 주님의 영이 내게 ‘내종 히버를 영국으로 보내 복음을 외치게 하고 그 나라에 구원의 문을 열게 하라...’ 고 속삭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낀 나는 혹시 브리감 영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느냐고 예언자에게 물었다. 예언자는 브리감 영이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라고 생각되었다. 막중한 이 일은 나를 놀려 버리는 듯 싶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이 있었지만 의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순간에 나는 어떠한 곤경이 닥치더라도 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보호할 것이며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자질을 갖추어 주리라는 믿음이 강해졌으며, 무엇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가족을 어려운 처지에 남겨 두고 떠나야 했으나 나는 진리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 줄 것으로 확신하였다...

대관장단은 그들의 손을 나의 머리에 얹고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성임하였다. 그들은 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사 영국에 있는 모든 영혼을 그의 앞으로 인도하게 하고,

천군 천사가 항상 나와 동행하고 나를 받들어 내 발이 실족하지 않게 되도록 축복했다. 그리하여 나는 큰 축복을 받고 비단 영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일해야 했다.

이 부름을 받은 이후 나는 매일 신전의 다락방 동쪽 방에 들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보호를 간구하였으며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임명하신 사업을 명예롭게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하였다...

[1837년 6월 13일 화요일 영국으로 떠나야 할 날이 왔다. 로버트 비 톰슨 장로는 히버 형제가 가족과 작별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영국으로 떠나기로 된 날이 다가 왔다. 나는 그 계절에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보내기 위하여 킴블 형제와 이삼백 마일을 함께 동행할 점 그가 언제 떠날지 확인하려고 그의 집에 들어 섰다.

반쯤 열린 문을 열고 들어선 나는 눈 앞에 나타난 광경에 압도되었다. 나는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다시 나가려고 했으나 무엇인가가 나의 발을 그 자리에 묶어 놓았다. 가장이신 킴블 형제는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험한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는 희망의 여행이 되게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참새도 돌보시고 우는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이 집에 남겨 두고 가는 아내와 어린 자식에게 필요한 것

을 주시도록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축복사처럼, 또한 그가 가진 직분에 의하여 각 가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의 축복을 주면서 그가 외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참지 못해 터져 나오는 가족의 울음 소리에 킴볼 형제의 기도 소리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 가족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슬픔이었다. 그는 축복을 계속했으나 가슴을 메우는 감정은 그를 태연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가라 앉히려 그는 간간히 축복을 멈추어야 했으며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의 뺨을 적셨다. 나의 마음은 눈물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했다. 나의 눈물은 그들의 눈물과 한데 엉겼다. 그 때 나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였다.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가족, 그에게 그렇게도 중요했던 아내와 자녀를 두고 떠나가게 한 것은 의무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대업에 참여하려는 의지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탁입니다. 저를 침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의 사건은 킴볼 장로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양들이 나의 음성을 알고 따라

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요 10:5 참조)

이 놀라운 진리가 히버의 선교 사업 중에 입증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몇몇 형제들에게 다운햄과 챗번에 가려 한다고 말하자 그들은 가짜야 전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면서 극구 만류하려 들었다. 이미 여러 종파의 목사들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 차례 시도해 봤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지난 30년간 일체의 교파나 정당을 거부하는 완악한 그들의 마음으로 인해 이제는 모두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었다. 나도 역시 그곳이 매우 종교를 거부하는 곳이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복음은 배척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고 확실히 믿었으므로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나는 그 형제들에게 나의 일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이므로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날 우리는 챗번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강한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그날 저녁은 클리테로에서 설교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요구를 들어 줄 수가 없겠노라고 전했다. 이것은 그들을 만족시켜 주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나에게 요구해 왔으며 하는 수 없이 나는 그들과 남기로 동의하고 클리테로의 모임에 필딩 장로가 참석하도록

부탁하였다.

챗번의 주민들은 나를 따듯이 반겼으며 많은 사람이 나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다. 그들은 큰 십일조 창고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 큰 통을 놓아 그 위에 내가 서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였다. 나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여 주신 복음의 원칙과 죄 많은 세상에서 용서해야 할 조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특권에 대하여 간결하게 설교하였다. 또한 나는 부활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나는 주님의 영을 입어 간증하였으며,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다고 여겨졌던 이들은 겸허함과 사랑을 갖게 되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였고,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를 원한다면 전옥과 그의 가족, 고벨료와 그의 가족이 침례를 받았듯이 그들도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말을 마치자 나는 누군가가 옷자락을 잡아 당기는 것을 느꼈다. 돌아다 보니 엘리자베스 파팅톤 부인이 “선생님, 부탁입니다. 저를 침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여기 저기서 “저도요” “저도요”라고 12명 이상이나 소리질렀다. 나는 물 속으로 들어가 25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확인하려고 밤늦도록 그들과 담화하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다운햄을 향하여 떠났는데, 그날 약 30명에 가까운 회원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다음날 저녁 나는 셋번으로 다시 돌아왔다. 회중이 너무 많아 나는 야외에서 돌벽에 단을 세우고 설교를 해야 했다. 그날 여러 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 두 마을의 한 끝에서 다른 한 끝에까지 복음의 영향이 두루 미쳤으며 부모는 자녀를 불러 내가 말한 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거짓 맹서와 악한 행동을 금하라고 경고했으며 의무를 다하라고 훈계하였다.

우리는 프레스턴을 5일간 떠나 있는 동안 약 11명에게 침례를 베풀고, 다운햄, 셋번, 웨딩턴, 클리테로에 지부를 조직했으며 이 지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몇 명의 형제에게 소신권을 부여하였다. 이 마을의 주민들이 최초로 미국 사람의 음성을 듣고 미국 사람을 보았다.

필딩 형제와 내가 다운햄으로 가던 중 셋번 마을을 지날 때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을에 가까이 가자 우리가 온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집집마다 퍼져서 모든 사람은 일손을 멈추고는 우리를 보고 반기려고 문가로 몰려 나왔다. 사십여명의 젊은이들이 뛰어 나왔다. 어떤 이는 우리의 옷웃을 들고 모두 서로 손을 잡았으며 몇 명의 젊은이는 손을 맞잡고 앞서 가며 시온의 노래를 불렀으며, 이러한 광경을 기쁨과 감격에 겨워 바라보는 부모들

은 우리의 머리 위에 축복을 주기도 하고 감추어졌던 진리의 원리와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도 했다. 어린이들은 1.6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다운햄까지 따라갔다. 그와 같은 광경, 그와 같은 감사를 나는 전에 결코 보지 못했었다. “나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마 21:16)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보다 더 만족스럽고 기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복음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마음이 강박하고 이 지역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변화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 “동부 여러 주의 생산품”

1848년은 메뚜기 떼가 솔트레이크 계곡을 휩쓴 해였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기근과 절망을 몰아 오는 메뚜기 떼는 계곡을 온통 검게 덮었고 농작물에 덮쳤다. 연약한 곡식은 무섭게 탐식하는 이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메뚜기 떼는 문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쓸어 버렸다. 공포와 기근이 가난한 정착민의 얼굴에 역력하였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구제를 받았다. 모든 것이 황폐되어 아무 것도 남겨지지 않을 듯이 보이던 때에 갑자기 갈매기 떼가 몰려 왔다. 그들은 파괴자를 먹으려고 온 것이었다. 갈매기는 하루 종일 메

뚜기를 잡아 먹고 배가 부르면 쉬었다가 또 잡아 먹곤 하였다.

여전히 식량은 부족하였다. 계곡에서 추수한 첫번 수확은 개척자들과 유럽에게 건너온 이주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다. 갈매기의 도움으로 많은 피해는 면했으나 메뚜기 떼가 해친 농작물의 피해는 많은 어려움을 안겨다 주었다.

반은 굶으며 의복도 제대로 입지 못하던 주민들은 내일 먹을 빵과 발가벗은 몸에 걸칠 의복을 걱정해야 했다. 바로 이때에 히버시 김볼은 예언의 영에 충만하여 공석상에서 모든 회중을 놀라게 하는 말을 하였다. 머지 않은 장래에 “동부 여러 주에서 온 생산품”(유타는 그 당시에 주로 독립되지 못한 속령이었음)이 대 솔트레이크시의 거리에서 뉴욕보다 싼 가격으로 매매될 것이며 주민은 의복과 식량을 풍족하게 얻게 될리라는 것이었다.

“믿을 수 없어”라고 찰스 시리치는 말했으며 그 놀라운 선언을 들은 사람 중의 90퍼센트는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성령의 힘이 감퇴되고 본연의 상태로 돌아오자 히버 자신도 그의 말에 놀랐다. 착석하자 그는 형제들에게 “이번엔 내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의 말이 아니었으며 그 말을 하게 한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다.

이 놀라운 예언은 캘리포니아로 금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뜻밖



에 출현함으로써 성취되었다. 그 당시 미국은 금광 발견으로 들떠 있었고 누구나가 이 일을 바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대륙을 횡단하여 금광으로 갔다. 솔트레이크 계곡은 그들이 쉬어가는 장소가 되었다. 히버의 예언에 대한 성도들의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놀라운 예언은 바로 성도들의 대문 앞에서 이루어졌다. 금광을 발견하려는 이들은 단지 태평양 연안에도 착하겠다는 한 가지의 욕망에 가득 차 있었다. 다른 모든 욕망과 감정을 버리고 물질에 대한 갈망으로 길을 떠난 것이었다. 그러나 여행의 속도가 느린 것을 참지 못한 이들은 마차의 짐을 덜기 위하여 그들이 대륙을 횡단하려고 마차에 싣고 왔던 귀한 상품을 버리거나 헐값으로 팔아 버렸다. 이들은 지친 말이나 가축을 성도들의 튼튼한 노새나 말과 바꾸고자 하였다. 이들은 잡화물, 의복, 천, 도구, 식료품 등등의 물건을 원하는 대로 주고 가축과 바꾸려 하였다. 그들에게는 여행의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물품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예언자 히버가 말한 “주의 생산품”은 정말 대 솔트레이크시의 거리에서 뉴욕보다 싣 값으로 팔렸다.

그후 몇 년이 지났을 때 히버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방인(창세기 10:5 참조),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뜻했음. 여기서는 물론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킴.

“제시의 영은 미래의 사건을 미리 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만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언자로 하여금 앞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은 전능자의 목적입니다. 제가 예언한 것도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리 보지 못한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고 그것은 나의 예언보다 오히려 더욱 많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계곡에 처음으로 입주한 사람들의 미래의 상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물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었으며 우리 모두는 가난하고 절망적이었으나 모두 위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머지 않아 식량과 의복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미국내의 어느 곳에서 보다 싣 값으로 물건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 이곳에 오게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나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리치 형제는 “믿을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또한 기쁘게도 내가 말한 대로, 아니 그보다 더 풍족하게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바르게 인도하셨습

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언자 요셉께서 자기로서는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시하실 때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예언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예언자가 되기 위하여 생활할 때 예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버트, 자넨 왜 주님께 불평을 했었나?”**

김블 형제의 친구이자 수년간 거의 한 식구처럼 지내왔던 로버트 스미스는 이렇게 말한다. “1857년 내가 김블 형제를 위하여 일하고 있을 때 어떤 물건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일로 나는 기분이 언짢아 집에 돌아와서 주님께 그 일을 털어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하러 가자 히버 형제가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로버트, 자넨 왜 주님께 그의 종 히버에 대하여 불평을 했었나? 자네가 원하는 물건 여기 있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일상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대하여 주님께 이야기하지 말게.’”

#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이라는 찬송가를 일 세기를 남짓하게 불러왔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온 찬송가나 또는 우리가 만든 찬송가 등을 부릅니다. 그러나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를 합당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뿐입니다.

이 곡은 영국 세펠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작사한 것입니다. 그는 강철 제련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몰몬 교회에 입교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서는 강렬한 간증의 불빛이 타올랐으며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펜을 들어 이 아름다운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이 찬송은 온 세상의 수많은 성도의 감사의 정신을 나타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은 것만도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감사의 기도인 이 노래는 21개국어로 불리워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언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정하는 종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뜻을 알리신다는 강한 확신은 우리의 신앙과 행동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를 갖든지, 아니면 아무 것도 갖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자를 가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12년 전 나는 홍콩을 떠나 선교부장과 함께 필리핀에 선교 사업을 치우므로 실시하기 위하여 간 적이 있습니다. 1961년 4월 28일, 우리는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는 모임을 가질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닐라 근교의 포트 맥킨리에 있는 미국 군인 묘지에 세워진 아름다운 대리석 기념관 현관에서 모임을 하게 해달라고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전 6시 30분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사극을 기억케 하는 거룩하고도 엄숙한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시

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의 필리핀 원주민 회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내게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쓰레기통에서 낡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몰몬인에 대한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언급되었으며 그를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라는 단어는 이 소년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예언자가 있을 수 있는가? 잡지는 없어졌으나 살아 있는 예언자의 존재에 대한 상념은 결코 어두운 전쟁 동안에도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전쟁은 종식되고 미국 정부는 클라크 공군기지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 필리핀인인 데이비드 라그만은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공군장교인 그의 감독관이 몰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교에게 진실로 예언자를 믿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내적인 갈등 끝에 그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장교님은 몰몬이십니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렇소” 장교는 곧 대답했습니다. “장교님은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그 교회에는 예언자가 있습니까?” 알고 싶어하는 질문을



드디어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관리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가지고 있지요.”

데이비드는 장교에게 좀더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그렇게 하여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 그는 급기야 칠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최초로 장로로 성임된 원주민이며 현재 북부부손 지방부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지금은 지상에 참으로 살아 있는 예언자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가르쳐 주는 머리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어느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소멸될 것이요, 분별력이 있는 자의 이해력이 없어지리라” (교성 76:9 참지)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세상을 널리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이해력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야기한 때는 비단 아모스 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벧후 1:21 참조) 고대 예언자들은 앞으로 있을 일을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 주는 계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살아야 할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기독교인 청년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접했으나 예언자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도 찾아 보지 못

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 중에서 예언자에 대하여 경건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그 종교를 받아들여 유대교인이 되었습니다.

1964년 여름 그는 뉴욕에 와서 세계 박람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물문관에 들어가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뜻을 보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과거의 위대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선교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 속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물문관을 지나 오면서 그는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불리우는 요셉 스미스라는 현대의 예언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영은 선교사들의 간증을 곧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칠판을 받았습니 다. 그는 남미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는 귀환하여 그의 가족과 그 외의 사람들을 교회에 입교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진실로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그를 계승한 모든 예언자는 이 높고 성스러운 부름을 받아들이는 합법적인 계승자라고 간증하는 그의 말을 들을 때 나는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아무런 편견을 가지지 않고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기꺼이 읽은 사람 중에 요셉 스미스가 앞으로 오는 사건을 말하는 위대한 예언자였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총성이 들리기 거의 30년전에 그는 미국 내의 비극적인 남북전쟁에 대하여 예언하였으며 그후에 전쟁이 온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이 위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일리노이주에서 쫓겨날 것이며 많은 역경을 당한 후에 미국 서부의 록키 산맥에서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오늘날 솔트레이크시 템플 스캐어에 있는 태버나클에 모인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의 모든 계승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1849년 추운 겨울날, 캘리포니아에서는 금이 발견되었으나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우리의 조상들이 굶주려 나리꽃뿌리와 엉겅퀴로 연명해야 했을 때, 브리감 영은 이 스캐어에 있던 노천정자에 서서 고생스러운 이곳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캘리포니아의 푸른 초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말씀 중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쁜 환경에서 더 나쁜 환경으로 쫓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부의 황야에 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신전을 세우고 도시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정착지를 늘리게 될 것이며 수많은 도시와 마을을 건설할 것이며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성도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각국으로 뿔는 대로가 될 것이며 왕과 황제와 귀족과 학식있는 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템플 스캐어에 세워진 방문자 센터에 서서 매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목격하고 브리감 영이 예언자로서 이러한 말씀을 하였다는 것을 의심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대관장이요 오늘날의 예언자로 지지하는 분을 만나기 위하여 대관장단 사무실을 찾는 유명인들의 행렬이 수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부의 지도자, 사업, 상업, 교육, 전문직의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황폐한 산중으로 쫓겨나게 되

있던 무렵에 브리감 영이 예언하신 “현명한 자와 귀족”(교성 .58 : 10) 중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두 주일 전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호주의 시드니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한 청년이 미국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읽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회가 기회인 만큼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던 중 그는 자기가 예언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에도 예언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를 사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 책을 발견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동안 이야기를 했으며 나는 요셉 스미스가 참으로 예언자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그가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사업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좀더 계속하여 공부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이와 같은 간증이 생기기를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그와 같은 간증을 갖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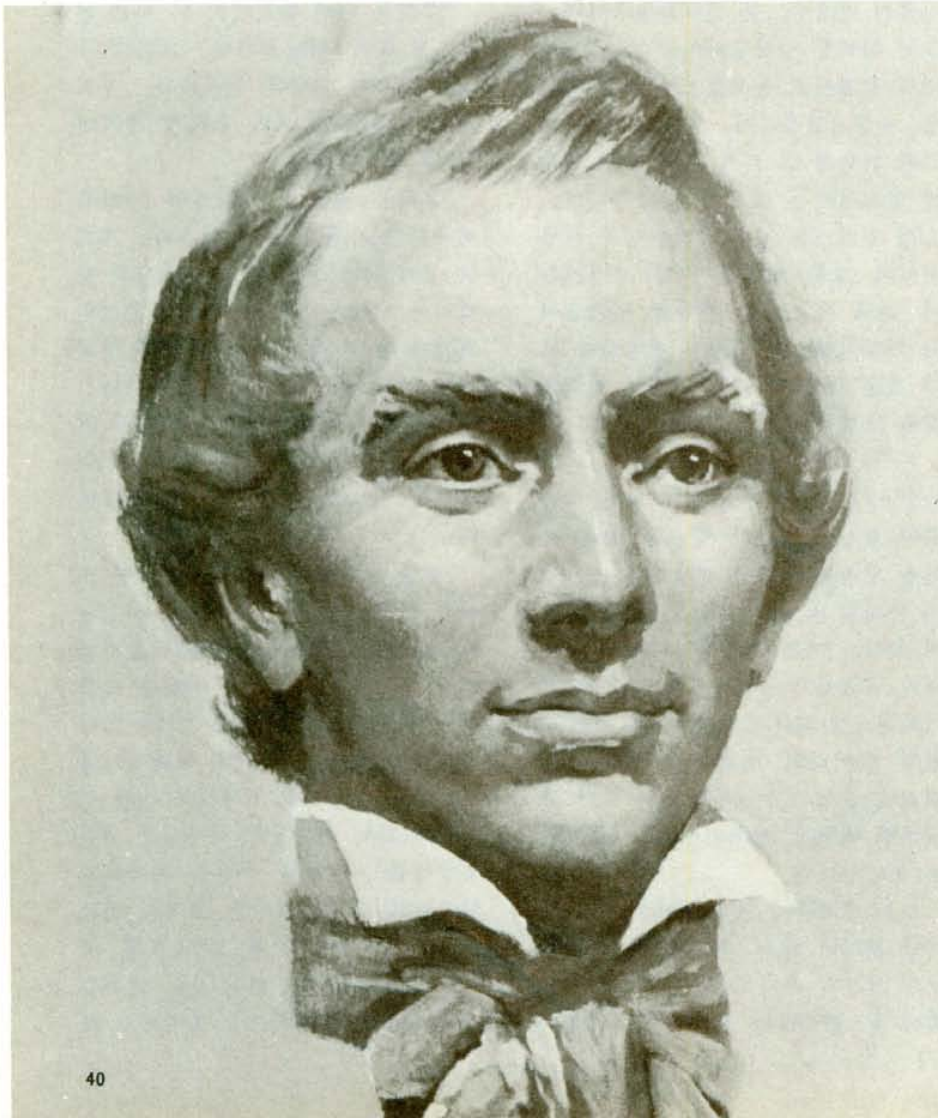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도구로 쓰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주신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일생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다듬으셨으며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때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나는 방금 높은 산에서 굴러 나온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돌과 같습니다; ...뾰족한 모서리와 모서리를 모두 잘라 버려서 (주의 : 요셉 스미스는 여기에서 그의 비유를 바꾸었다) 결국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통에 꽂힌 매끈하게 질 다듬어진 화살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에게서 욕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전기를 읽어 보신다면 그의 언변이 향상된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의 힘을 점차로 키워갔고 세련시켜 갔습니다. 점차로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남에 대한 사랑이 커졌습니다. 울퉁불퉁했던 모서리가 사라지고 전능자의 손에 들린 매끈한 화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계승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헌신하여 봉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듬어지고, 체로 쳐지고, 세련되어졌습니다. 브리감 영, 윌포드 우드럼, 조셉 에프 스미스 등과 같은 사람의 전기를 읽은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여할 크고도 성스러운 책임을 이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성품을 세련시켰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현대의 교회 대관장이신 해롤드 비리 대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그분을 당황하



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일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오늘날의 분류로 볼 때 가난했다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고된 노동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그의 방문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육을 받고자 온갖 애를 썼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심한 병도 앓았습니다. 그는 깊고도 어두운 슬픔의 계곡을 걸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회고해 보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 시련, 슬픔을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것에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뛰어 오르는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영국의 선교부에서 후임 동반자로 그와 함께 걸으면서 나는 젊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아름다운 얼굴로 그를 둘러싸고 그의 말을 열심히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권능을 가진” 예수처럼 이야기하고 경전을 가르칠 때 다른 선교사들이 완전히 몰입하여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찬의 진리를 이해시키려고 알기쉬운 말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늙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진장한 청년이 대관장님을 일싸안으며 눈물어린 눈으로 바라 보면서 “하늘과 이처럼 가깝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보다 더 감동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영의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가 실로 예언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온 세계의 성도들이 외치는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

고”라는 소리에 나의 소리를 더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꾀보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활할 때 화평과 발전과 번성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의 권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스러운 부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의 권고를 항상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며  
주께서 위안과 즐거움을

그에게 주시길 비읍니다.

(찬송가 317장)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는 선견자요 계시자인 예언자를 이 지상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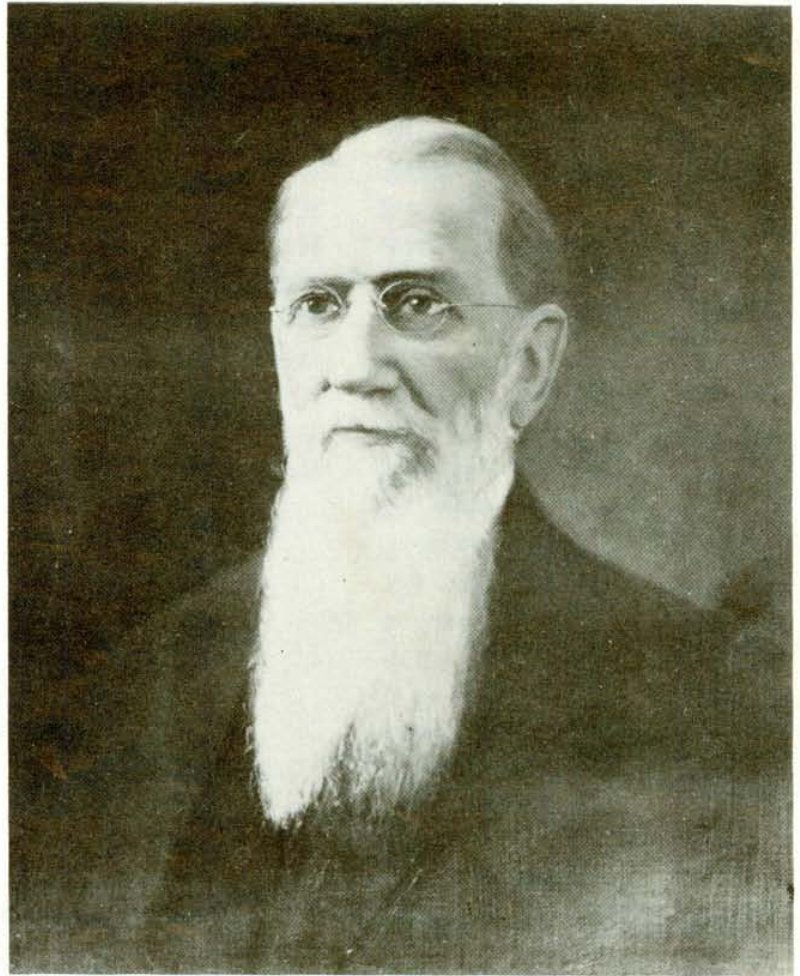
(143차 반연차 대회에서 하신 연설)



# 죽은자의 구원에 관한 시현

조셉 에프 스미스 (1838-191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6대 대관장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6대 대관장인 조셉 에프 스미스는 1838년 11월 13일 미 오리주 파웨스트시에서 하이람과 메리 필딩 스미스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1844년 6월 27일 일리노이주에 있는 카테지 감옥에서 그의 삼촌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함께 순교당했다. 1846년 어머니의 마차를 이끌고 아이오아 평원을 건너 네브라스카수에 있는 윈터 퀘터즈로 갔다. 2년 후 그는 두 마리의 소가 이끄는 마차에 모든 가구를 싣고 평원을 횡단하여 솔트레이크 계곡에 당도했다. 그의 어머니는 1852년 9월 21일 솔트레이크시에서 세상을 떠났다. 1834년 4월에 개최된 교회 대회에서

당시에 14세 밖에 되지 않은 조셉 에프 스미스는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1866년 7월 1일 그는 사도와 대관장단의 보좌로 성임되었다. 그러나 1867년 10월 8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고 대관장단 보좌에서는 해임되었다. 1880년 10월 10일 존 테일러 대관장은 그를 대관장단의 제2 보좌로 불렀으며, 그는 이 직분으로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과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도 보좌하였다. 그는 1901년 10월 17일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되었으며, 1918년 11월 19일 솔트레이크시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시현은 1918년 10월 31일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

도 정원회 및 교회 축복사에게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1918년 10월 3일 나는 방에 앉아 경전을 생각하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들의 위대한 희생과 하나님과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의 아들이 보여준 위대하고 놀랄 만한 사랑을 회상해 보며 그의 속죄를 통해 그리고 복음의 원칙에 순종하므로써 인류는 구원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내 마음은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복음이 전파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및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던 초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펴고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을 읽었는데 다음 구절에서 전의 어느 때 보다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극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명이라”(베드로 전서 3 : 18-20)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베드로 전서 4 : 6)

내가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 나가자 이해의 눈이 열렸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으며 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죽은 자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의로운 영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의 간증에 충실하였고 하나님 아들의 위대하신 회생을 본받아 자신을 희생했으며 구세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시련을 참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도의 벗 1974년 4월호

## 물론 사상의 정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예로운 부활을 확신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기쁨에 싸여 있으며 그들의 구원의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의 세계로 승천하셔서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의 구원을 선언하시길 함께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잠들고 있는 육신이 완전한 형태로 회복되어서 영과 육이 결합되어 결코 다시는 분리되지 않고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수가 죽음의 사슬로부터 구원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어서 지상 생활에서 성실했던 이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회개의 조건 하에 영원한 복음과 개인적인 죄와 타락으로부터 인류가 구원되고 부활되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자에게는 가지 않으셨으며, 육신의 몸으로 깨끗하지 못했

고 신성하지 못했으며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의 목소리도 전해지지 않았으며, 고대 예언자의 간증이나 경고를 거부한 반항적인 자들은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에는 암흑만이 존재했을 뿐이며, 의로운 영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고 성도들은 그들의 구원에 기쁨을 누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을 지옥의 사슬과 죽음으로부터 구해낸 구세주로서 절을 하며 맞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 모습은 빛이 났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부터 생기는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이니 그들은 그의 성스러운 이름을 받들어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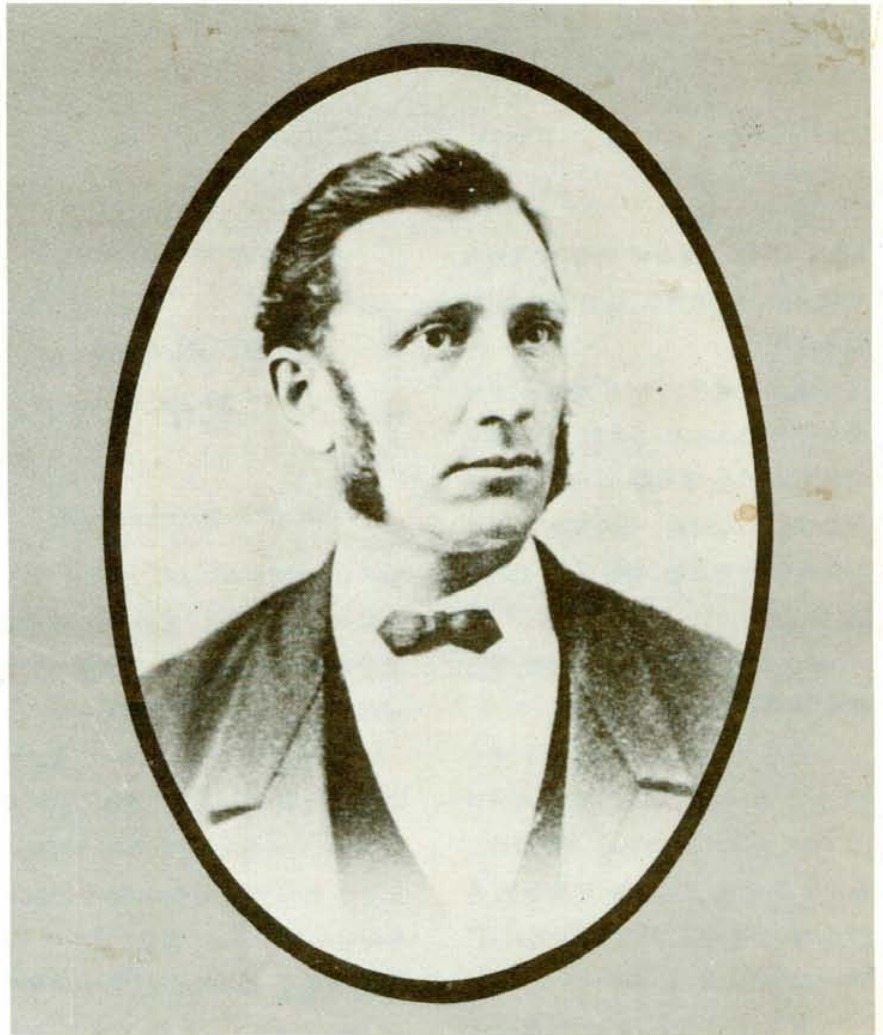
구세주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가문의 자녀들에게 삼 년간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고 회개를 하도록 하셨는데 그의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써 행한 사업과 기적과 진리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 했고 그의 임재하심을 기뻐했으며 그의 손에서 구원받기를 즐겨한 사람이 너무도 적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의아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임제한 기간이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의 극히 짧은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베드로가 한 말에 의아심이 가는데 그는 하나님 아들이 노아의 날에 하

## 죽은자의 구원에 관한 시현

계속

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곰곰히 생각하자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이해가 트여서 나는 주님께서 악한 자들이나 진리를 거부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영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는 의로운 자 가운데서 그의 군대를 조직하고 권능과 권위를 받은 사자들로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암흑 속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인간의 영에게 복음의 빛을 전파하도록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죽은 자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자들은 나아가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날을 알리고 묶여있던 죄수들과 자신의 죄를 뉘우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이나 진리를 모르고 죽은 사람이나 예언자를 부인하고 죽은 사람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



조셉 에프 스미스 29세 때

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죄사함을 위한 대리 침례와 안수에 의한 은사와 그들이 육신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복음의 원칙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작거나 성실하고 의로운 모든 죽은 자들에게 구원이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의 희생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는 영의 세계에 머무르면서 육신으로 그를 증거했던 예언자의 성실한 영을 가르치고 준비시켜 구세주 자신이 반항과 범법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 없었던 모든 죽은 자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들이 전달하고 이러한 구세주의 종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듣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자의 회중에 모인 위대하고 강한 사람들 가운데는 모든 자의 조상이며 가장 오래 되신 아담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

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실한 많은 딸과 함께 우리의 영예스러운 어머니인 이브가 있었습니다. 첫 순교자인 아벨도 그곳에 있었으며 그의 형이며 아버지 아담을 그대로 닮고 강인한 힘을 가졌던 셋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홍수의 경고를 내린 노아, 위대한 대제사인 셈, 성실한 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위대한 입법자인 모세, 예언으로서 구세주가 마음의 상처입은 자들을 한데 묶고 죄수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감금된 옥의 문을 열어 주도록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한 이사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더우기 바짝 말랐으나 죽은 자가 부활할 때에 육신의 몸을 입게 될 큰 제국의 골짜기에서 시현으로 보여진 에스겔, 말일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결코 멸망되지 않으며 다른 백성에게 정복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예언한 다니엘, 변형의 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일라이어스, 엘리야의 오심을 증거한 예언자 말라기 (모로나이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함.) 등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전신에서 죽은 자의 구원과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인봉을 위해 행해지는 위대한 사업을 예언했고 자녀들의 마음 속 성도의 빛 1974 년 4월호

에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심어 주어 그가 와서 저주로 전 세상을 쳐서 멸망되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과 그외에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아들의 오심을 증거하고 니파이 백성 가운데 거했던 예언자 까지도 그 많은 회중 가운데서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죽은 자는 영이 오랫동안 육신을 떠나 있음을 구속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가르치시고 구세주가 부활하신 후 부활할 힘을 주었으며 그의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불멸과 영생을 얻고 주님에 의해서 약속되었던 대로 그들의 일을 계속하고 주를 사랑한 그들을 위해 예비된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나의 부친인 하이람 스미스, 브리감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및 그 외에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위대한 말일의 사업의 기초를 놓고 신전을 건설하여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의식을 행하는 책임을 맡았던 많은 선택된 영들도 역시 영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처음부터 선택된 고귀하고 위대한 인물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많은 사람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첫 교훈을 받았으며 주님의 정당한 때가

이르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품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경륜의 시대에 성실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죽은 자의 영의 세계에서 죄의 속박과 암흑 가운데 처한 영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어서 회개한 자는 신전의 의식에 따르므로써 구원될 수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깨끗해진 후에 그들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구원의 시현이 내게 나타나셨으며 나는 이를 증거하며 이러한 간증이 사실임을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아멘. ■

조셉 에프 스미스 29세의 모습.

1898년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60회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 온 마음을 다하여

엘 에드워드 브라운 선교부장

주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와 그의 복음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헌신하도록 거듭 권고하고 계십니다. 교리와 성약 4편에 보면 그는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5-16절에 보면 주님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봉사의 태도를 꾸짖으십니다. 주님은 미적지근한 태도로 50퍼센트 정도만 봉사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가운데서 나태한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나태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는 교회 회원으로 생활하더라도 위안을 느끼지도 만족을 얻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원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왕도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50퍼센트 정도만 노력하고서 100퍼센트의 평화와 행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다음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1. 내가 최후로 가정 복음 교육을 100퍼센트 행한 것은 언제였는가?
2. 내가 최후로 100퍼센트의 완전한 십일조를 바친 것은 언제였는가?
3. 내가 최후로 금식 주일에 완전히 금식한 뒤 진실로 100퍼센트의 금식 헌금을 바친 것은 언제였는가?
4. 나는 교회 집회에 100퍼센트 참석하고 있는가?
5. 나는 정규 가정의 밤 시간을 100퍼센트 활용하며 갖고 있는가?
6. 나는 규칙적으로 가족 기도를 드리는가?
7. 나는 매일 혼자서 은밀히 기도드리는가?
8. 나는 모든 사람을 100퍼센트 완전하게 용서하는가?
9.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계보 탐구를 열심히 하는가?
10.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는가?

해의 왕국은 주님의 사업을 “온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사람을 위해 예비될 것이며 달의 왕국의 일부는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교성 76: 79) 말일성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한국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태도로 봉사하는 성도들의 태도와 나태함을 볼 때에 마음에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계속 진보하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온 마음을 맡겨 봉사함으로써만 열립니다. 이외에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특권은 없습니다.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닙니까. 다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것을 결심합니다.



